

# 보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5

2021 May  
Vol. 540



새로운 삶의 의지를 키우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05

# Contents

2021 May  
Vol.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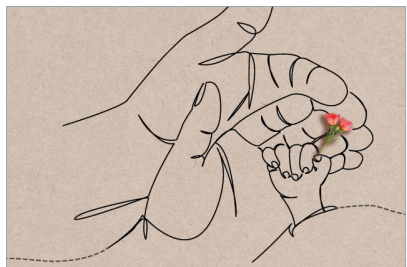


## COVER STORY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해 사회적 지지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 시선이 닿다

<b>교정 ZOOM IN</b> 안양교도소	<b>04</b>
<b>생각의 방향</b> 지금, 사랑하는 가족에게 온 마음을 담아 꼭 해야 하는 한마디	<b>10</b>
<b>지금, 이 사람</b> 가족,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	<b>12</b>
<b>별별 알고리즘</b>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	<b>16</b>

## 일상을 펼치다

<b>부캐를 부탁해</b> 드론 교육 수원구치소 교사 진명언	<b>18</b>
<b>선배에게 듣다</b> 안양교도소 교감 윤대근	<b>22</b>
<b>교정인 원픽</b> 따뜻한 상생 정신에 전하는 감사의 마음	<b>26</b>
<b>힐링 메신저</b> 숲과 냇물, 예술과 삶을 품다 안양	<b>30</b>
<b>지구 초대석</b> 조금의 불편함만 있을 뿐! 가정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	<b>34</b>
<b>물음의 소통</b> 직장인을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직업병'	<b>36</b>

## 세상을 품다

<b>관계 반창고</b> 행복한 가족이 되는 필수적인 조건	<b>38</b>
<b>알쓸꿀잡</b> 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는 장난감 관리 편	<b>40</b>
<b>머니 레시피</b>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서로에게 금융 선물을	<b>42</b>
<b>인문학 살롱</b>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영화 <미나리>	<b>44</b>
<b>오늘의 건강</b> 오복 가운데 으뜸, 구강 건강 이야기	<b>46</b>

## 소식이 오다

<b>교정 이모저모</b> 교정본부장 언론 브리핑	<b>48</b>
<b>대나무숲 일기 1</b> 장흥교도소 교위 정우성	<b>50</b>
<b>대나무숲 일기 2</b>	<b>52</b>
<b>교정 리포트</b>	<b>54</b>
<b>교정 News</b>	<b>58</b>
<b>모범 공무원 소개</b>	<b>65</b>
<b>독자 퀴즈 및 이벤트</b>	<b>66</b>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인**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05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5월호 Vol.540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http://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http://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오랜 역사를 간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안양교도소

1963년에 세워진 안양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교정시설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소망의 집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용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치료 및 전문 상담

안양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수용자의 문제 행동을 경감 시키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소망의 집에서 오롯이 떠오르는 새 희망

일반 가정집과 유사하게 조성한 소망의 집은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 처우 시설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소망의 집을 관리하며 수용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 합니다.



# 전문적인 기술 교육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도작업

안양교도소 직업훈련과는 도자기, 마스크 등 교도작업을 운영하며 수용자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자기는 교정 작품으로 출품해 안양교도소와 온라인 교정 작품 쇼핑몰인 보라미물에서 판매하며, 봉제 작업장에서 생산한 마스크는 지역사회를 위해 판매 기증하고 있습니다.



#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과 수용 관리

안양교도소 보안과는 노후화된 교정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보안 근무와 수용생활 관리로 질서를 유지해 교정사고를 예방합니다.



## 지금, 사랑하는 가족에게 온 마음을 담아 꼭 해야 하는 한마디



유병록 시인의 '식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집는데 /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 다시금 놓자니 눈치가 보이고 / 한번에 먹자 하니 입속이 먼저 찢고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 나머지 한 장을 떼내어 주려고 /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 이런 게 식구가 겠거니 /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깻잎 한 장 떼어 주려고 순식간에 모여드는 젓가락. 가족은 그런 거겠죠. 곁에 있어 주고, 기다려 주고, 붙잡아 주는 존재.

도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에 온다고 소식을 전해 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거라 반가워해야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앞섭니다. 형편이 나빠져서 살던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장 아들을 재울 방 한 칸이 없었던 어머니는 새 주인에게 사정해서 하루 동안 집을 빌립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된 옛 집에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 먹이고 함께 잠을 잡니다.

다음 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어머니와 아들은 쌓인 눈을 헤치며 길을 나섭니다. 동구 밖까지만 바라다주겠다던 어머니는 마을 뒷산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따라나서고, 뒷산에 도착한 다음에는 신작로 까지만 데려다주겠다고 나섭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어머니는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조금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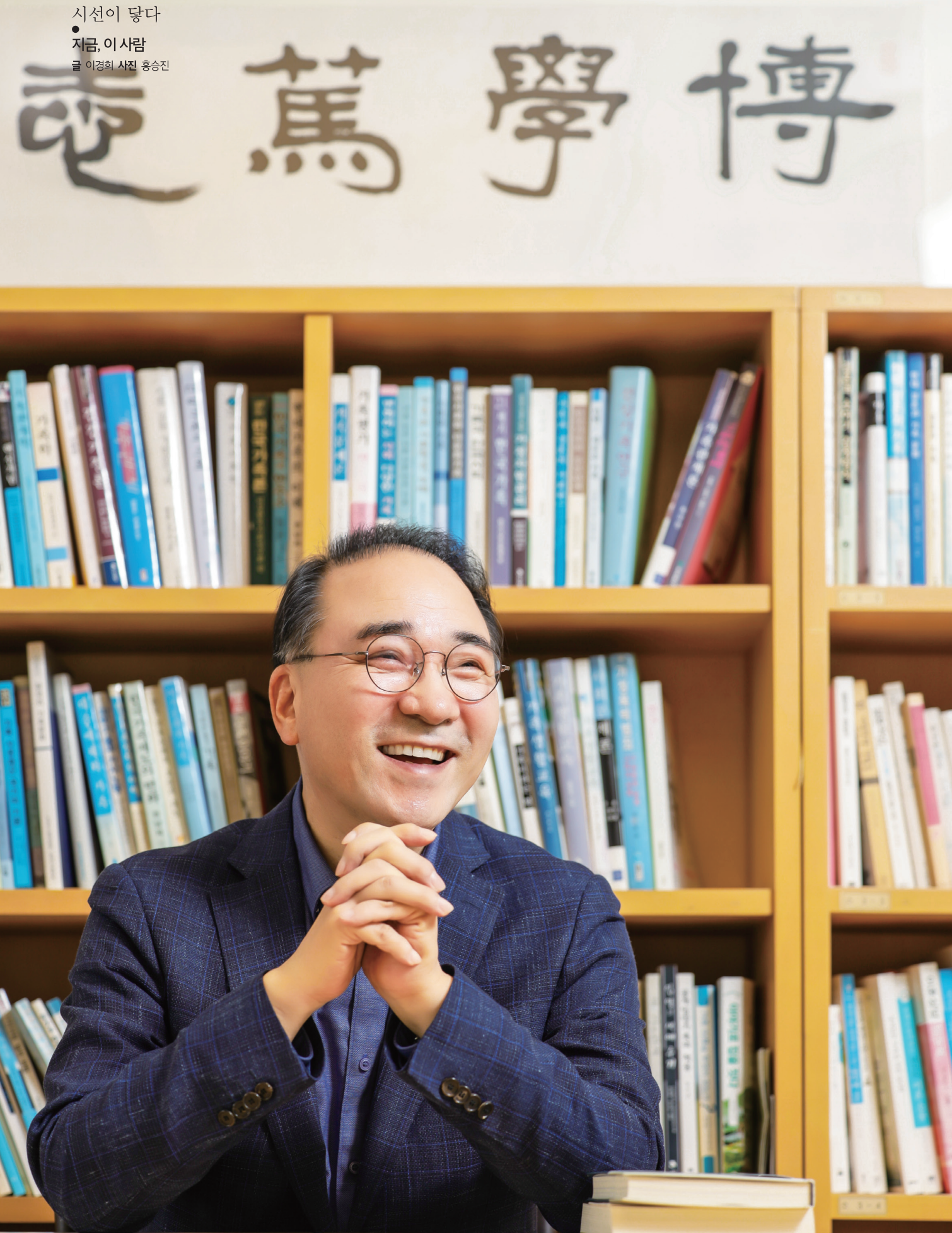
이별의 시간을 뒤로 미루다가 어느새 차부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몇 마디 나눌 사이도 없이 아들은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차를 타고 떠나 버립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길만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집도 없는데 말이죠. 눈발 위에는 아들의 발자국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의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따라 걷습니다.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 거라." 그때 눈길을 밟으며 함께 걸었던 아들과 어머니는 이청준 작가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서글픈 동행은 나중에 작가의 소설 <눈길>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한평생 아들 뒷바라지에 헌신적이었던 어머니는 말년에 치매에 걸리게 되는데요. 설날 고향에 찾아온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반가워하며 말합니다. "손님 오셨구마. 우리 집엔 빈방도 많으니까 편히 쉬었다 가시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도 몰라보고 반가운 손님 대하듯 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아들은 작가로 성공하고 나서 아마 많은 사랑을 전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해 드리지 못한 일, 함께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마음에 남아 후회가 났을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죠. 뒤로 미뤄 둔 일들과 하지 못한 말들은 어쩌면 영원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조너선 사프란 포어'가 쓴 소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사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생은 문득 언니에게 한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왠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언니인지. 하지만 동생은 그날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못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있고 그다음 날도 있고, 그들에겐 함께 할 수많은 날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동생은 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날, 도시는 갑작스러운 폭격을 받게 되고 동생은 언니를 잃게 되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 할머니가 된 동생은 손자에게 안부를 전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당부하죠.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언제나 해야 한단다. 사랑한다, 애야."

김재진 시인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시에서 묻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 아프지 않고 / 마음 졸이지도 않고 / 슬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 얼마나 남았을까 / (중략) /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 (중략) /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다음에 함께 하자고 미뤄 뒀던 일은 기회가 없고,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결국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마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 가족,

##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

강학중 소장은 21년 전, 국내 최초로 가정경영연구소를 설립한 인물이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로 가정의 중요성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진 지금, 가정경영 전문가인 그를 만나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 21년 전, 가족을 말한다

2000년 1월 6일, 강학중 소장이 그 이름도 낯선 '가정경영연구소'를 열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도 안 되는 연구소의 소장 직함이 대형 출판사의 대표이사를 내려놓고 등가교환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대표이사 자리에 앉고 보니 이게 평생을 목매달고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연륜을 쌓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죠. 당시 우리 회사의 사시가 '건강한 가정'이었는데 제가 경영을 해 보니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자기 일에 전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연구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 시작한 삶에서 교수나 학자가 되고픈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배움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경영학으로 석사까지는 했지만 가정경영연구소를 시작하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절실했다. 그래서 가족관계학 전공으로 경희대 박사과정에 등록했다. 이후 그는 MBC <러브하우스> 등에 출연해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가정경영 전문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강학중 소장이 전하는 가족에 대한 메시지는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큰 울림을 가져다줬다.

“지금은 가족, 가정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많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하물며 남자가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더 없었죠. 누군가는 선견지명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추구했던 가치가 시기적절하게 때를 맞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시기가 잘 맞았으며 겸손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강학중 소장의 등장 이후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조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중요한 사회 기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 행복

##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교화의 기적을 믿는다

강학중 소장은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행복해지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전통적 개념이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가족은 ‘누구와 살아도 같이 유대를 갖고 챙겨 주며 사랑하는 사이’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과 복잡한 상황 속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학중 소장은 높아지는 범죄율과 잔혹 범죄의 증가가 불행한 가정, 가족 붕괴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일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범죄가 가정,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예외 없이 그 씨앗은 가정에서 잉태해요. 찾김에 방화하고 ‘묻지 마 살인’을 하고 술 취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가족 문제, 부모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싹이 커져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강학중 소장은 교정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대해 “너무나 좋고,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반색했다.

“자신이 지금은 비록 죄를 짓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와 있지만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가족이 바깥에 있다면 당연히 이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사고를 덜 치는, 소위 말하는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과 연결하는 교정본부의 교육·교화 프로그램 효과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강학중 소장은 수용자 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교도관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이들의 행복이 곧 교정기관의 행복과도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큰 직군일수록 이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건강한 방법을 많이 찾아야 합니다. 술, 도박, 게임 등 건강하지 못한 방법은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자연이 주는 치유 효과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등산, 텃밭 가꾸기, 목공, 반려동물 키우기, 반려식물 가꾸기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동반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강학중 소장은 또 교도관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에서 행복해야 일터에서도 웃을 수 있고 자신의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대 근무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교도관들에게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 SNS, 카카오톡, 문자, 화상통화, 손 편지, 메모 등을 활용하세요. 사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큼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가족 간의 대화도 습관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다만 그 얘기가 꾸지람이나 지적, 타박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동반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재충전한 교도관은 일터로 돌아와 수용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용자들은 죄를 짓고 들어온 명백한 가해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지지 기반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한 것.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표현하는 건전한 수단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도관이 내민 커피 한 잔과 관심이 내재된 말 한마디 등은 뜻밖의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관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스스로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도관분들께서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감정

삶의 온도를 높이는 마법 같은 순간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마음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작점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

# LOVE &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고, 서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가족의 형태나 모습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삶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 보세요.

# FAMILY

진정한 나를 재발견하는 밑거름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

멀리 떨어져 지내면 금세 보고 싶은 사이

언제나 항상 곁에 있어 주는 존재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아늑한 보금자리

## 보안의 사각지대를 책임질

## 드론 교도관 ‘찐프로’가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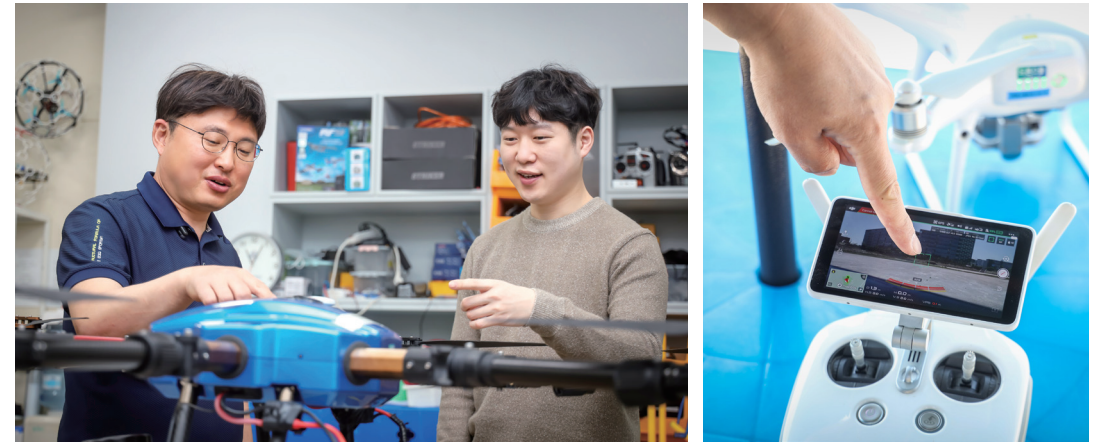
수원구치소  
교사 진명언

‘하늘이 제철이다’란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되는 계절. 수원구치소 진명언 교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 ‘드론 교도관’이라는 생애 첫 부캐의 꿈을 그렸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선 날, 막연했던 상상 속 부캐와의 싱크로율을 점점 높여 나가는 사이 마침내 드론도, 부캐의 꿈도 훨훨 날았다.

※ 5월호 ‘부캐를 부탁해’의 드론 교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은 드론 전용 비행장에서 진행했습니다.



# DRONE SECURITY



### 본캐와 부캐의 융합을 상상하다

진명언 교사의 본캐는 수원구치소 의료과 소속의 8년 차 교정공무원이다. 본캐의 연장선에서 역량을 북돋는 한편 부캐를 통해 이제껏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다는 진명언 교사. 좀 더 구체적인 계기와 기회는 문밖에서 대기라도 한 양 금세, 순차적으로 다가왔다.

“소방공무원인 형이 어느 날 드론 얘기를 들려줬어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드론을 띄워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덕분에 불길을 더 빨리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재 현장이 교정시설로 자동 전환되면서, 교정 시설에 드론을 띄워 보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상상을 했다는 진명언 교사는 그 길로 드론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곧바로 기회도 열렸다. 월간 <교정>의 ‘부캐를 부탁해’ 코너를 통해서였다.

### SF와 다큐를 넘나드는 드론에 ‘드머들다’

드론에 입문하기 위해 수원벤처밸리 내 드론스쿨을 찾기 전까지 진명언 교사는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드론을 떠올렸다. 드론을 실물로 보는 것도 이날이 처음. 그래서일까. 마스크를 썼음에도 설렘과 기대는 가려지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모를 리 없는 10년 경력의 드론 전문가, 드론스쿨 조현준 대표는 지금이 드론에 입문하는 데 최적기라는 말로 진명언 교사의 선택을 환대했다.

“10년 전만 해도 드론 비행에는 여러 한계가 따랐어요. 당시엔 5분 비행도 버거웠는데, 2010년 이후 배터리 기술이 진화하고 카메라 소형화, 통신 기술 발달 등이 더해지면서 지금은 30분은 거뜰히 비행할 수 있죠. 또 작동이 미숙하면 이착륙 시 훼손될 만큼 기체가

약하고 허술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 드론은 기체의 안정성도 매우 좋아졌어요.”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비행술이 90%를 좌지우지했다면 지금은 10%로 줄어들 만큼 드론 작동이 수월해졌다는 게 조현준 대표의 설명. 물론 비중과 상관없이 비행을 위한 기본 교육 이수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 그는 실전 교육에 앞서 드론의 종류와 폭넓은 쓰임새는 물론이고 한계까지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조현준 대표에 의하면 드론은 대형 마트 장난감 판매대에서 파는 25g가량의 초경량부터 성인 2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100kg이 넘는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쓰임새 또한 비교적 흔하게 사용하는 촬영용 드론부터 농약 살포, 인명 구조, 배달, 정찰, 스포츠 등 폭넓다. 온전히 상상력의 영역이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SF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장면이 드론을 이용하면 당장 눈앞의 다크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이쯤 되면 진명언 교사의 머릿속에서도 드론의 활용 영역이 무한 팽창하면서 궁금증이 마구 부풀었을 터. 가장 궁금했던 교정 시설 내에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부터 구했다. “교정시설에서 보안과 수용자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일부 유튜브가 지방 교정시설에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하려는 시도가 발생한 걸 보면서 드론으로 이를 순찰하거나 제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드론의 순기능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외부와 격리된 교정시설 또한 이들의 타깃 중 하나인데, 해외 교정시설의 경우 드론을 악용한 사례가 제법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멕시코의 한 교정시설에서 외부로부터 드론으로 담배나 약물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 조현준 대표의 조언은 이에 대한 답변이자 해결책으로 명쾌했다. 진



명언 교사의 생각처럼 교정시설 내 보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는 기본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방역은 물론 모기를 비롯한 해충 방제까지 드론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불법 촬영이나 물품 반입을 위해 침입한 드론을 전자파로 제지하는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졌다.

#### ‘쥘프로’가 인정한 드론 교도관 ‘쥘프로’

실내에서 영상과 기체를 보며 이뤄졌던 교육은 실전을 위해 이동한 야외 드론비행장에서 한층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폭을 날리기 전 여러 번 잼을 날리는 권투 선수처럼 진명언 교사는 교육 내용을 복기하듯 한참을 연습한 다음에야 본격적인 비행에 나섰다. 결과는 완벽한 성공. 진명언 교사의 몇 가지 손동작 끝에 드디어 드론이 반응하는가 싶더니, 상승 방향으로 레버를 조정하자 이내 고개를 90도로 꺾어야 할 만큼 높이 치솟았다.

드론을 작동하며 슬슬 손맛에 익숙해질 즈음에는 또 다른 세계인 안티드론 체험의 기회까지 주어졌다. 조현준 대표가 안티드론 개발 기업인 삼정솔루션 최춘화 대표에게 협조를 구해 전자파를 발사하여 비행 중인 드론을 제지하는 안티드론 기술을 접하게 해 준 것이다. 교육을 진행하며 진명언 교사에게서 드론 교도관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드론 교도관에 대한 진명언 교사의 바람 또한 기꺼이 스승이 되어 준 조현준 대표 덕분에 한층 선명해졌다.

“직접 드론을 작동해 보면서 드론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졌어요. 수용자 인권 문제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우선이지만, 앞으로 교정시설의 보안과 관리에 드론이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정 업무에 드론을 접목하는 드론 교도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격증 취득부터 착실히 준비해야겠어요.”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진명언 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국가자격증 종류와 취득 방법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드론 관련 공공임무특화교육 정보까지 아낌없이 전수해 주는 조현준 대표. 그는 애제자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진명언 교사를 위한 부캐명까지 직접 지어 줬다. 자신의 별명인 ‘쥘프로’에서 가져온 ‘쥘프로’가 그것.

“지금까지 많은 이에게 드론 비행 기술을 전수해 왔지만 진명언 교사는 드론에 임하는 자세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습득력도 매우 높아 앞으로 드론 교도관 ‘쥘프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조현준 대표의 도움으로 드론 작동에 필요한 10%의 비행술을 익혔다면, 감각을 익히고 활용 아이디어를 넓혀 가는 건 순전히 진명언 교사의 몫. 드론이라는 새롭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접속한 뿌듯함에 부캐명까지 덩으로 받은 진명언 교사. 머지않아 본캐와의 케미스트리를 보여 줄 부캐, 드론 교도관 ‘쥘프로’의 힘찬 비상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

## 서로 보듬으며 멀리 갑시다!



**윤대근**(안양교도소 보안과 교감)

‘기쁨은 나누면 배가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안양교도소 보안과 윤대근 교감은 오랜 교정공무원 생활을 거치며

이를 절실히 느꼈고, 동료들과 함께 오래도록 근무하기 위해

주변을 적극적으로 보듬고 있다. 그가 누구를 만나든 웃음과 칭찬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양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대근 당직교감입니다. 2004년에 입사해 경북북부 제1교도소, 대구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지방교정청에서 근무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안양교도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 중입니다. 보안과 근무는 주야가 자주 바뀌기에 때로는 고되기도 하지만, 교정시설의 중심이자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Q.** 보안과 업무 중 가장 신경 쓰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수용자를 대할 때는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부드럽게 하고 일반 수용자를 대할 때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이를 지켜본 수용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용자든 공평하게 대하고, 공과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원칙대로만 수행한다면, 교도소 분위기가 순식간에 삭막해질 겁니다. 커다란 일관성을 가져가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원칙에 반하지 않는 유연성을 조금씩 발휘한다면, 수용자의 마음을 얻기 수월해지죠. 법을 수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꼼꼼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법에도 정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수용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화하는 것, 이것이 교정공무원의 본분이자 업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Q.**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근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교정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처럼 시민들과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컨대 수용자 한 명이 탈옥해서 사회를 휘젓고 다닌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은 상상 이상으로 큼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이러한 불상사를 막는 사람들이죠. 교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그들을 교화시켜야 하기에 신체적·정신적 업무 강도가 상당합니다. 어찌 보면 힘든 것이 당연한 셈이죠. 그런데 힘들 때 ‘나는 왜 힘들까’ 하며 그 이유를 자신에게 돌리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은 보람찬 직업이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힘든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힘든 점을 가족이나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위로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 왔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최선을 다해 들어주고 보듬겠습니다.

66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세요. 이것이 바로 후배 교정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껏 근무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업훈련과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한 수용자가 돌이나 벽돌을 쌓는 조직 분야의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무사히 출소 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실력과 성실함이 눈에 띄어 정식으로 채용됐어요. 이후에도 열심히 일했고, 평생의 배필을 만나 결혼식 청첩장도 보내 왔죠. 그분을 보면서 수용자들도 충분히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고, 이후 한층 더 열심히 수용자 교화에 나섰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Q. 일하면서 선배 교정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013년에 근무지를 대구교도소로 옮겼을 때가 기억에 납니다. 당시 대구교도소 보안과장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이제 막 부임해서 조직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때로는 업무 실수도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이 칭찬받게 됐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분과 일하면서 이 진리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후에는 그분을 본받아서 동료들에게 싫은 소리 대신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반면 칭찬을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와 활력이 높아지죠. 그러니 여러분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격려로 동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북돋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좋아진 조직 분위기는 결국 나에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Q.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업무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신입 직원일수록 더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5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새로운 일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익숙한 일 외에 다른 일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경험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해낼 수 있죠.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세요. 이것이 바로 후배 교정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감님은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시나요?**

햇볕을 많이 쬐는 활동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도 좋아하고,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도 즐겨요.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햇볕을 많이 쬐는 것'에 있죠. 교정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그늘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줄어들고, 사회와 멀어질 수 있어요. 햇볕은 현실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틈틈이 햇볕을 쬐는 습관이나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야 밝은 미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남은 10여 년 동안의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거나 징계를 받은 뒤 퇴직하면 명예롭게 퇴직했다고 볼 수 없죠.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서 퇴직할 때 스스로 '교정공무원으로서 시간을 잘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명예가 제 것이 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교정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따뜻한 상생 정신에 전하는 감사의 마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안양교도소는 지난해 초, 급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뜨거운 상생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교도소 내 봉제 작업장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감염병 예방용 마스크를 생산해 판매·기증한 것. 안양교도소에 전달한 다양한 선물은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 안양교도소가 자랑스럽습니다!

작년 2월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였다. 코로나19가 전국에 걸쳐 급격하게 확산됐지만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안양교도소는 지역사회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교도소 내 봉제 작업장을 활용해 면 마스크를 생산, 매우 저렴한 가격에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것. 이러한 뜻을 높이 산 필터 생산업체가 안양교도소에 마스크용 정전기 필터 20만 개를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안양교도소에서 생산한 마스크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졌다.

안양교도소는 마스크 판매와 함께 안양시와 지역사회에 마스크를 기증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마스크 생산이 전국 12개 교도소의 봉제 작업장으로 확대되자, 즉시 마스크 규격서와 견본 등 마스크 생산 노하우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4일부터 KF94 마스크를 전국 교정시설 최초로 위탁 생산하며 ‘K-방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정시설’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기에 월간 <교정> 취재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안양교도소 직원들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선물했다. 다행히 손 소독제, 핸드워시, 마사지 불, 운동 밴드, 혈압 측정기, 커피 머신, 안마기, 인바디 체중계 등 다양한 선물과 마주한 직원들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 안전과 위생의 방벽을 높인다

#### ‘손 소독제·핸드워시’

마스크의 일상화·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종식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다. 여전히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은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안양교도소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겹의 튼튼한 방벽을 쌓고 있지만, 이를 더욱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손 소독제와 핸드워시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다. 이번에 전달된 손 소독제는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펌프식이 아닌, 한 사람당 하나씩 개봉해서 쓸 수 있는 일회용이기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교차 감염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 핸드워시에는 프렌치라벤더·허브민트·편백 등의 천연 아로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위생과 손 미용 기능성을 동시에 잡았다. 총무과 이선옥 교위가 “수도권 도심지 교정시설의 특성상 외부인이 많이 오가는데 두 제품으로 교도소의 안전과 위생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만족해하자, 민원과 손민준 교도가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 민원관에 더욱 유용한 선물”이라고 맞장구쳤다. 이번에 전달된 손 소독제와 핸드워시는 청사·민원실·화장실 등에 두루 비치해 직원들과 방문객, 수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지켜 줄 예정이다.





**빠른 몸, 이제 마음껏 푸세요**

**'마사지 불-안마기'**

누구든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의 근육이 굳기 마련이다. 이럴 땐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제격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틈틈이 쉬는 시간에 빠르고 쉽게 몸을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안양교도소에 마사지 불과 안마기를 선물했다.

안양교도소에 전달된 마사지 불은 바닥에 놓고 등·허벅지·종아리 등을 효과적으로 풀어 줄 수 있는 폼롤러, 양손으로 잡고 밀며 뭉친 잔 근육을 푸는 마사지 스틱, 목 뒤와 같은 신체의 오목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마사지하는 땅콩 볼 등 3개 제품이 한 세트로 구성돼 있다. 표면이 다이아몬드 돌기 형태로 만들어져 한층 큰 마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마기에는 온열 기능이 들어가 있어 몸의 피로를 더욱 빠르게 풀어 준다. 시설과 이재성 교도는 “몸을 쓰는 업무가 많은 시설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이라며 행복감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총무과 김윤수 교위도 앞으로 마사지 불과 안마기를 잘 활용해 더욱 좋은 컨디션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휴게실에서 직원들의 빠른함을 풀어 줄 두 제품의 활약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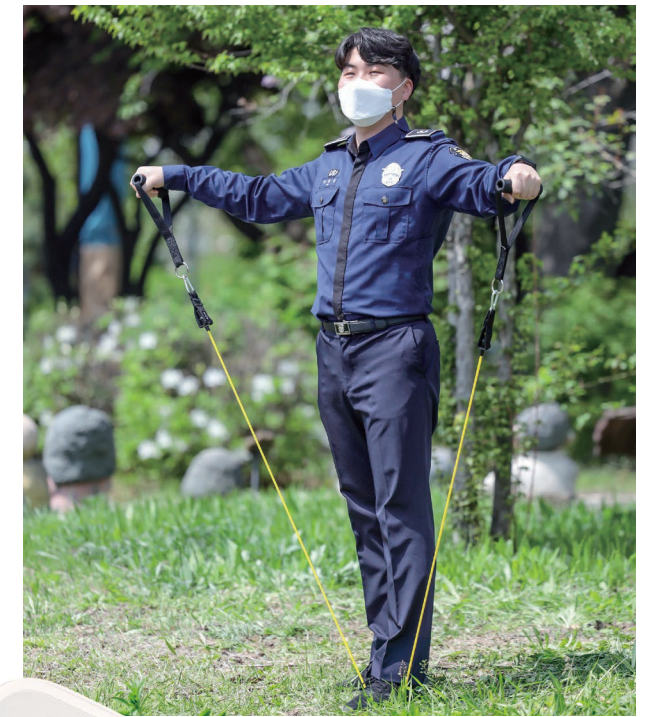
**일터에서 떼는 건강관리의 첫걸음**

**'운동 밴드·혈압 측정기'**

모두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누구나 이를 실천하지는 않는다. 일상 속 건강관리 인프라가 부족해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이 닿는 곳에 건강관리 도구를 비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운동 밴드는 다양한 운동을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운동기구다. 특히 안양교도소에 전달된 운동 밴드는 신체 능력별로 5가지 강도의 튜빙 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더욱 높다. 좁은 곳에서 온몸운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운동 밴드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한편 혈압은 성인병과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며, 주기적으로 꾸준히 측정하면 신체 건강을 추적 관리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건강한 사람들도 혈압 측정을 통해 다가올 만성질환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는 복지과 이동진 교사는 “운동 밴드와 혈압 측정기로 ‘건강의 일상화’를 이룰 수 있겠다”며 앞으로 꾸준히 제품을 활용할 것을 다짐했다. 또 민원과 이장우 교사는 “건강관리의 첫걸음을 일터에서 떼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건강 증진을 통해 더욱 활기찬 교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운동밴드와 혈압측정기 덕분에 안양교도소의 일상은 한층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숲과 냇물, 예술과 삶을 품다

# 안양

숲으로 가는 길, 예술과의 조우에 가슴이 설렌다. 자친 산책을 위로하는 벤치는 조각 작품이 되고, 무심코 스치는 냇가에는 삶의 흔적이 묻어난다. 안양의 숲과 냇물은 예술과 역사를 소담스럽게 담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어 간다'는 '안양(安養)'의 길목에 들어서 있다.

### 숲속에 들어선 안양예술공원

●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세워진 곳으로 안양의 변신을 함께 해 왔다. 안양에 예술이 무르익는 시간 동안 안양교도소는 현재의 공간에서 묵묵히 그 궤적을 지켜봐 왔다.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으로 익숙하다.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를 흐르는 삼성천 계곡은 예전부터 숲, 등산로, 유적 등으로 산행객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계곡 주변에 식당이 즐비했던 안양유원지가 완연하게 색깔을 바꿨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의 바람을 타고 자연과 조형물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예술 쉼터로 정착한 것이다.

안양예술공원을 단장한 조형물만 50여 점. 작품들은 숲과 계곡에 웅기종기 숨어 있다. 약도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꽤 발품을 팔아야 한다. 안양예술공원에 들어서면 1평 면적의 육면체를 쌓아 올린 '1평 타워'가 공원의 시작을 알린다. 공원에서는 도로 표지판, 벤치, 평상, 정자 하나도 선불리 지나치면 안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의 작품이다.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싶은 '낮잠 데크'와 할머니들이 두런두런 잡담을 나누는 '로맨스 정자'에도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아 있다. 꼬마들이 놀이 기구로 이용하는 '미로언덕'도 예술 작품이다.

공원의 조형물은 테마별로 구분돼 있다. 환영, 호기심, 놀이, 쉼 등이 그 주





제다. 큰 바위 위에 설치된 물고기 형태의 분수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와 튜브 통로가 주차장과 야외무대를 잇는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등도 흥미롭다. 음료 박스를 재활용해 블록처럼 쌓은 ‘안양상자’는 낮과 밤에 각각 다른 빛을 연출한다. 대나무를 연결해 돛형으로 만든 ‘안양사원’, 야수의 머리를 장미꽃으로 장식한 ‘신종생물’도 산책로에서 만날 수 있다.

## 김중업 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

숲길 산책의 백미는 ‘안양 전망대’에 오르는 것이다. 숲 가운데 불쑥 솟은 전망대는 네덜란드 건축가 그룹이 제작한 것으로 등고선을 입체화해 산속의 산을 만들어 냈다. 정상에 오르면 숲에서는 보지 못했던 안양예술공원과 안양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안양사와 삼성산, 관악산의 숲은 신록이 완연하다. 안양이란 이름이 유래된 안양사의 옛 절터에는 독특한 외관의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은 공장 건물을 박물관으로 재구성한 곳이다. 김중업건축박물관에는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기반을 닦은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 세계가 담겨 있다. 그의 대표작인 주한 프랑스대사관, 제주대학교 본관, 서산부인과 등의 모형과 스케치, 메모를 전시 중이다. 그가 남긴 글과 작품 속에는 ‘사람들이 정답게 모여 사는 건축 공간’에 대한 꿈이 담겨 있다. 안양박물관 외벽은 붉은 벽돌에 ‘모자상’과 ‘파이어니어상’ 조각이 새겨져 있다. 안양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안양 관련 유물을 전시한다. 옥상에는 야외 카페도 있어 주변 풍광을 감상하며 차 한잔하기에 좋다.

## 정조가 건너던 만안교와 안양천

삼성천 계곡과 안양천이 만나는 길목의 풍경은 평화롭다. 동네 꼬마들이 돌다리를 건너고, 삶과 가까운 하천을 따라 산책을 하는 아늑한 모습이 담긴다. 안양의 대표 유적인 만안교는 안양천 지류의 작은 개울 위에 들어서 있다. 만안교는 조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수원으로 가는 길에 건너던 다리다. 행차 때마다 임시로 나무다리를 만드는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아치형 석교인 만안교를 만들었다. 만안교(萬安橋)에는 ‘만 년 동안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리를 건너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다리 옆에는 비석도 세워져 있다. 매년 정조대왕 능 행차 때, 안양에서는 이곳 만안교에서 행차를 시작한다.



안양천의 봄 길은 서울을 가르는 광활한 하류에서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보행교인 작은 다리와 돌다리들이 삶의 공간을 울망줄망 연결한다. 하천 변 나무 그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장기를 두고 연을 날리는 소박한 모습이 펼쳐진다. 특히 매년 봄이 되면 안양교도소에서는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다. 안양교도소 외부 정문에서부터 교정아파트까지 이어진 길에 왕벚나무가 줄지어 있다. 교도소 신축 당시 심어져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목으로 성장했다. 매년 봄마다 아름다운 벚꽃 터널을 만들어 벚꽃 명소로 소문나 있다.

## 옛 채석장 흔적 깃든 병목안시민공원

안양천의 지류인 수암천은 수리산으로 연결된다. 하천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길 하이킹은 안양을 즐기는 묘미 중 하나다. 수암천은 안양의 구도심인 1번가를 가로질러 옛 안양의 동네를 다독이며 흐른다. 수암천 자전거길이 끝나는 지점에 병목안시민공원이 들어서 있다. 병목안시민공원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철도용 자갈을 채취하던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재단장한 곳이다. 채석장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절벽은 여름이면 인공 폭포가 시원한 물을 뿜는다. 공원에는 채석장 시절의 열차 선로가 복원돼 있으며 캠핑장, 사계절 정원,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다. 병목안시민공원 바로 앞으로는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곡물이 흐른다. 수리산 초입에는 안양에서 신앙생활을 펼치다 기해박해 때 순교한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인 최경환 신부의 성지가 남아 있다.

### '바삭 구운 쫄깃한 맛' 중앙시장 막창

안양 1번가 옆 안양중앙시장은 맛의 아지트다. 시장 안에는 음식 특화거리가 별도로 조성돼 있을 정도로 온갖 먹을거리가 넘쳐난다. 안양 주민들이 꼽는 중앙시장에서 꼭 맛봐야 하는 별미는 막창이다. 중앙시장 막창 식당들은 바삭 구운 쫄깃한 막창을 푸짐하게 내놓는다. 철판 위 노릇하게 구워진 막창에는 묵은 김치 등이 곁들여진다. 막창을 주문하면 다양한 양념장과 머릿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간 국물이 서비스로 나온다. 40년 넘게 시장을 지켜 온 막창집 등 10여 곳이 한데 모여 있다. 청춘들에게는 중앙시장 순대곱창골목도 인기다. 곱창과 깻잎, 순대와 들깨가루가 어우러진 매콤한 순대곱창이 나오는데 곱창을 맛본 뒤에는 볶음밥을 먹는 게 순서다.



# 조금의 불편함만 있을 뿐! 가정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다수의 기업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동 변화다. 조금의 불편함이 지구를 지키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 소등 습관 들이고 대기 전력만 아껴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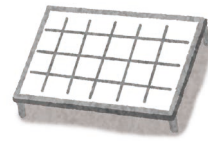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올해 51주년을 맞이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구의 날에는 전국에서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소등 행사는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불을 끄는 것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10분간의 소등만으로도 이산화탄소 5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7900여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니 평소에도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꺼두는 것이 좋다. 대기 전력은 전기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전력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사라지는 대기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1%를 차지한다. 가정에서 대기 전력으로 가장 많이 낭비되는 제품으로는 셋톱박스과 에어컨, 컴퓨터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 전력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전기 코드를 빼거나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교정공무원이 국민 곁에 있음을 알리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가정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에 동참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선정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과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



전력을 아끼는 것을 넘어 집을 '발전소'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재생 에너지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태양광에너지다. 옥상이나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만 해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직접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곳 중 하나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 절전소를 만든 성대골 마을은 각 가정의 베란단에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력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슈머, 친환경 소비 실천으로 지구 지키기



자연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인 그린슈머(greensumer)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그린슈머처럼 친환경 소비를 통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 제품 구매 시 유기농이나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 천연 소재나 천연 자재로 만든 상품 등을 잘 따져 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마크를 확인하면 더 쉽게 친환경 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더불어 재활용품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여 재탄생 시킨 '재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활용 제품은 단순한 재활용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제품이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의류를 만들거나, 폐가죽과 현수막이 가방이나 앞치마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활용 제품은 새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고, 폐기물 오염 방지와 자원 절약에도 동참할 수 있다. 이처럼 친환경 소비 실천은 우리의 지구를 숨 쉬게 할 수 있다.

## 올바른 친환경 인증 마크

### 환경표지 인증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환경표지 마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 제공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



### 저탄소제품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장 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



### 에너지절약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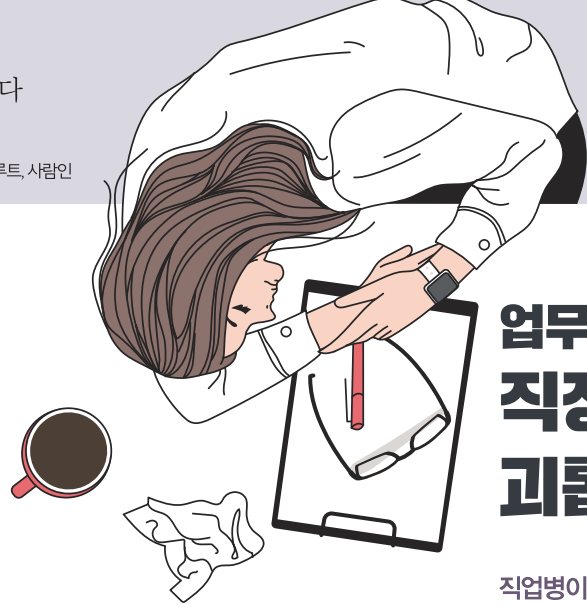
대기 전력 저감 기준을 만족해 한국 에너지공단에 대기 전력 저감 우수 제품으로 신고된 제품을 인증하는 것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30~50%의 에너지 절약 효과



### GR 마크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한 제품 중 품질 및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고 에너지 절약 등 재활용 파급 효과가 큰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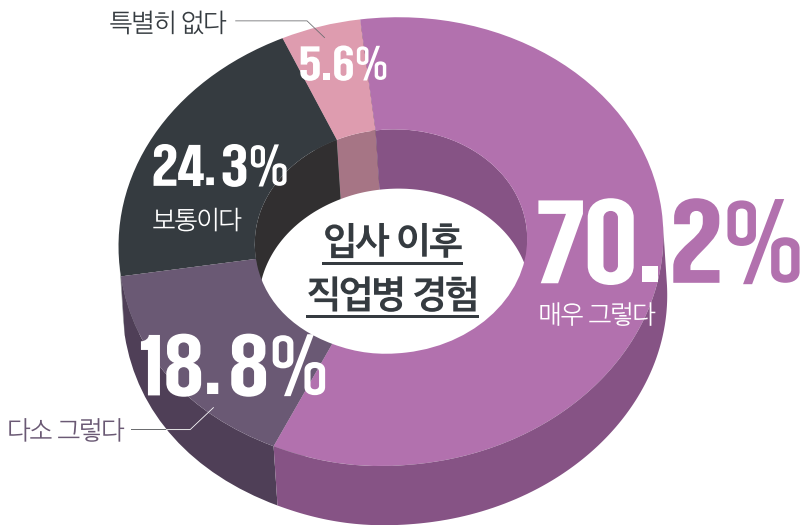


## 업무 중 발생하는 건강 적신호! 직장인을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직업병'

직업병이란 어떤 특정 직업에 오래 종사함으로써 그 직업의 특수한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어떤 직장인이든 하나씩은 갖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직업병을 호소하고 있다.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까지 그 범위도 넓은데, 직장인을 괴롭히는 주요 직업병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 직장인이 겪어 본 직업병 Top 3(복수 응답)

- 1 **거북목 증후군**
- 2 **목, 허리 디스크**
- 3 **불안장애**



### 직장인 건강 이상 증세 경험 70.2%, '직업병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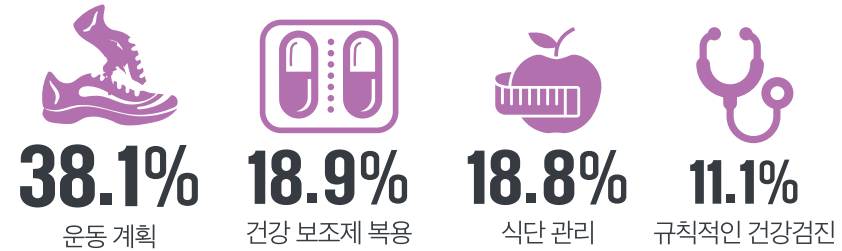
대부분의 직장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 운동 부족 등으로 직업병 하나쯤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취업 포털 인크루트와 면접 알바 앱 알바콜이 함께 직장인 750명을 대상으로 직업병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입사 후 건강 이상 증세를 경험했고, 가장 큰 주범으로는 과로와 근무 환경을 꼽았다.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한 연령대 중 30대(88.6%)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73.0%)보다 여성(85.2%)의 비율이 12.2% 높았다.



### 건강이 나빠졌다고 판단한 기준

직장인들이 입사 이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컨디션이 좋지 않다(20.9%)로 꼽혔다. 컨디션 저하가 지속된다면 잠을 자더라도 개운하지 않고 업무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교대 근무를 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컨디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면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섭취와 적절한 운동, 햇볕 쬐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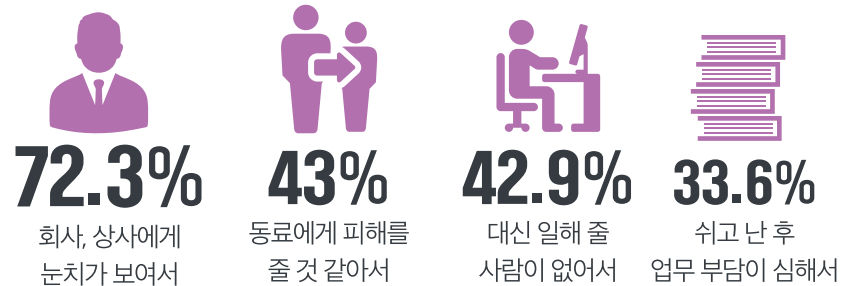
### 건강관리를 위한 향후 계획(복수 응답)



### 현실적인 문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으로 '아프면 3~4일 쉬기'를 제안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2,065명을 대상으로 '아프면 3~4일 쉬기' 수칙에 대해 조사해 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87.2%)는 답이 많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은 '아파도 쉬기 어렵다(46.6%)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근무 일정 조율 등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정본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처럼 우리 사회도 아파면 쉬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 아파도 쉬기 힘든 이유(복수 응답)



### 교정공무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 Check List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관리 등으로 인해 근무 도중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직업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직업병을 관리해 보자.

#### 나의 몸 상태는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 무언가 짓누르는 것처럼 어깨가 무겁다.
- 앉았다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온다.
- 얼굴이 비대칭이다.
-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다.
- 눈의 피로를 자주 느낀다.
- 뒷목이 당기면서 두통이 자주 생긴다.
- 신발이 한쪽만 닳는다.
- 손발이 자주 저린다.
- 계단을 오를 때 종종 어지러움을 느낀다.
-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피로하다.
- 출퇴근길에 휴대폰을 놓지 않는다.
- 하루에 6시간 이상 잤아 있는데.
- 몸은 피곤한데 깊은 잠을 못 잔다.
-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말을 하면 목에 자극이 있다.
- 머리카락이 심하게 많이 빠진다.
-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 긴장하면 화장실에 가게 된다.
-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몸에 기운이 없다.
- 오랜 시간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것이 힘들다.
- 신경이 예민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다.

#### 몇 개를 체크하셨나요?

- 1~5개** 충분히 건강해요. 그래도 건강 유지를 위해 꾸준히 운동해 주세요.
- 6~10개**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2~3일에 한 번씩은 꼭 스트레칭하세요.
- 11~16개**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요. 후회하기 전에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 17~20개** 꼭 운동하세요! 빠른 시일 내 병원에 방문해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 행복한 가족이 되는 필수적인 조건



### 어떤 어려움에도 간절히 지키고 싶은 것

이탈리아 배우이자 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는 필자가 자주 추천하는 가족 영화다. 현재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만났을 때 함께 힘을 내기를 바라며 권하곤 한다. 베니니는 직접 이 영화를 감독하고 주연도 맡았다. 때는 나치가 인류를 비참으로 내몰던 제2차 세계대전 말이다. 어린 아들 조수아와 나치 수용소에 갇힌 아버지 귀도는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끔찍한 수용소를 마치 지상낙원처럼 꾸미는 연기를 펼친다. 귀도의 노력 덕에 조수아는 수용소에서도 동심과 행복을 잃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도망치던 부자는 불행히도 나치 군인에게 발각된다. 귀도는 군인에게 총살을 당하기 직전 조수아 앞에서 한 번 더 눈물겨운 연기를 펼친다. 조수아가 마지막까지 아빠의 미소를 기억하게 하는 연기였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면서도 지키고 싶은 대상이다.

### 함께 할 시간이 너무 짧은 우리

우리는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가족시간 계산기’를 검색하면, 가상으로 나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줘 쉽게 알 수 있다. 계산에 따른 시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짧다. 특히 사랑하는 내 부모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런 자각이 필요하다. 소중한 이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지만 세상에는 웃음이 사라진 가족도 있다. 어떤 가족은 서로 무심하거나 반목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보지 않으며 지내기가 한다. 같은 공간에 함께 산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다. 가족 누군가와 하루 10분, 20분도 살가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지나는 날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심리 용어 가운데 ‘역기능 가족’이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에게 충족돼야 할 여러 가지를 제대로 채워 주지 못하는 가족을 뜻한다. 가족끼리 무심히 지내는 것을 두고서 역기능 가족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가족 사이에 소통과 교감이 줄면 언제든 가족 갈등이나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 가족의 마음을 나누는 치유서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존속하고 결속하려면 어떤 것이 충족돼야 할까? 필자가 꼽는 필수 조건은 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가 말하는 인간의 영성과 거의 일치한다. 베일런트는 “인간은 정교한 사회적 결속에 의해 생존”해 왔고, “무조건적인 애착, 용서, 감사, 다정한 시선 마주치기가 그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종이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영성으로 사랑, 용서, 희망, 기쁨, 연민, 믿음을 제시한다. 가족끼리 이렇듯 선한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루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베일런트의 책은 일반인이 읽기에 조금 어렵다. 필자가 하는 독서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직면한 삶의 숙제를 풀기 위해 참고할 만한, 당사자에게 적합한 ‘치유서’를 여러 권 제시한다. 가족 상담을 할 때면 유독 자주 권유하는 치유서가 있다. 부부 갈등이 심할 때는 존 가트맨·낸 실버의 <가트맨의 부부 감정 치유>와 <행복한 결혼을 위한 7원칙>을,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대니얼 고틀립의 <가족의 목소리>나 스콧 할츠만의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 같은 치유서를 자주 권한다. 치유서가 되려면 실용서나 자기 계발서처럼 필요한 것만 콕 집어 말하는 책이어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독이고 움직일 만한 감동과 깨달음도 넉넉히 담고 있어야 한다. 여러 책 중에 특히 스콧 할츠만의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은 거의 모든 가족 상담에서 목차와 내용까지 세심하게 설명할 때가 많다. 이 책에는 행복하고 단단한 가족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8가지 조건이 나온다.

###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함께 행복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8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가족은 가족에 관한 자기 가치인 ‘가족 가치관’을 합의하고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많은 가족이 구성원의 가치관 차이 때문에 갈등을 빚는다. 각자의 인생관, 세계관은 달라야겠지만, 가족 가치관만큼은 합치점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가족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면 많은 지점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헌신과 소통’이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헌신하고 항상 소통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평화적인 소통이 사라지는 것은 가족이 붕괴되는 일이기도 하다. 셋째는 ‘지원과 지지’다. 이는 단지 물질적 공여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외에도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관계여야 한다. 넷째는 ‘자녀 교육’이다. 구성원 모두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성장을 위해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는 ‘융화’다. 이는 무조건적인 의견 일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섯째는 같은 맥락에서 ‘갈등 해결’이다. 가족은 수시로 내적·외적 갈등과 직면한다. 서로 힘을 합쳐 문제를 헤쳐 나갈 때 가족의 평화도 유지된다. 일곱째는 ‘회복’이다. 이는 갈등 해결 이후에 동반돼야 할 조건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슬기롭게 해결하고 다시 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 가족의 힘을 갖춰야 한다. 여덟째는 나머지와는 조금 구분되는 요소지만, 가족의 본원적 기능과 관련되는 ‘휴식’이다. 가족이 존재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서로 도와 그 사람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휴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다. 가정의 달, 우리 모두 가족의 조건을 고민할 때다.



# 알쓸꿀잡



##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장난감 관리 편

우리 아이들과 매일 함께하는 장난감. 깨끗해 보이는 장난감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균과 먼지가 가득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손으로 만지며 가지고 논다. 그러다 입에 넣어 물고 빠는 게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장난감 소재별 관리법과 안전사고 예방 팁을 소개한다.

### 장난감 소재별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

# 1



#### 플라스틱과 고무, 미온수에 세정제 풀어 세척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대부분의 장난감은 플라스틱이나 고무 소재로 되어 있다. 평소에는 솔로 먼지를 털거나 물기 있는 천으로 닦아 관리하고, 일주일마다 장난감 전용 세정제나 젯병 세정제 등을 사용해 세척한다. 미지근한 물에 세정제를 풀고 장난감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놓았다가 행구면 된다. 뜨거운 물에 삶은 경우 모양이 변형되거나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2



#### 천이나 털로 된 패브릭, 수시로 햇볕에 소독

패브릭 소재 장난감은 먼지가 많아 자주 세탁하지 않으면 집먼지진드기가 생기기 쉽다. 부드러운 재질이라 아이들이 물고 빠는 경우가 더욱 많아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아이의 침이 닿으면 각종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테이프나 먼지떨이를 이용해 수시로 먼지를 없애고 자주 햇볕에 말려 소독할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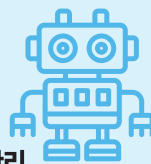
# 3



#### 원목, 물 대신 제균 스프레이와 마른 수건 활용

블록과 같은 원목 소재의 장난감은 물로 세척하면 안 된다. 원목의 특성상 물을 흡수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변형돼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2~3번 제균 스프레이를 뿌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된다. 코팅된 장난감이거나 오염 물질이 묻었다면 물티슈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애 준다. 또한 원목 장난감은 틈새나 홈이 많기 때문에 면봉이나 솔로 먼지를 자주 제거해야 한다.

# 4



#### 금속, 녹슬거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

변신 로봇이나 미니 자동차 같은 금속 소재 장난감은 녹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로 세척할 경우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부식될 수 있어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한다. 얼룩진 부분은 물수건으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 물기를 없애야 녹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잘 닦이지 않는 틈새나 홈은 면봉을 활용하면 된다.

### 가정에서 일어나는 장난감 안전사고 예방 팁



#### 장난감 구매 시 KC 마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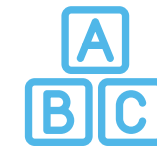
KC 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을 통합해 단일화한 인증 마크다. 2015년 6월부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됐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KC 마크다.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KC 마크 및 안전·경고 문구를 확인하고 구매하기 바란다.



#### 아이와 함께 놀이 활동 전 장난감 점검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변형된 부분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손상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긁히거나 찢리는 등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수리하거나 버리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반드시 어른이 지켜봐야 하며, 다 가지고 논 후에는 장난감을 안전하게 치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질식이나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장난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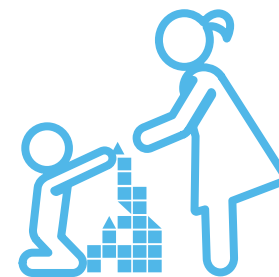


장난감이 눌렀다 펴지면서 크기가 변형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이의 입에서 부피가 커지는 경우 질식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8세 미만의 어린이는 터진 풍선이나 불지 않은 풍선에 의해 질식할 수도 있다. 또한 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지름 3cm 이하 장난감을 줄 경우 삼킴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주면 안 된다.



#### 대형 장난감으로 인한 추락 사고 예방

추락 사고는 아이들이 대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발생하기 쉽다.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충격을 감소시키는 바닥재를 설치해야 한다. 아이가 미끄럼틀이나 그네에서 놀 경우, 장난감이나 장식장 등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치워 놓는다. 또 대형 장난감 구매 시 설치 장소와 나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아이가 대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



#### 아이들에게 올바른 장난감 사용법 알려 주기

새로운 장난감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안전 수칙을 이해할 수 있는 5세 이상 어린이에게는 '혼자서도' 안전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알려 준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들 스스로 장난감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서로에게 금융 선물을

최근 들어 이색적인 금융 상품권이 눈에 띈다. 금융 상품권이란 백화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듯이,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금융 규제가 풀리면서 증권과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품권이 나왔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에게 금융 상품권을 건네 보면 어떨까? 우리 부모님과 친구, 자녀들에게 재테크의 기회를 선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주식·연금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 상품권

금융 상품권 판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1번가와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 원권과 5만 원권 2종의 금융 상품권을 팔고 있다. 각 채널당 한 명이 일주일에 최대 2장씩(10만 원)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 상품권은 사실 현금과 유사해 자칫 잘못하면 일명 '카드깡' 용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깡의 사전적 정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다. 즉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을 뜻한다. 신용카드로 금융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곧바로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현금화하면 카드깡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이 때문에 고액 구매가 금지돼 있다. 한국투자증권 금융 상품권의 경우, 금융 상품권을 계좌에 등록한 뒤 1회만 매매하면 그동안 등록된 금융 상품권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금융 상품권은 성인이 된 자녀나 부모님, 또는 배우자에게 선물하면 좋다. 주변에 이 금융 상품권을 고등학교 자녀에게 선물한 사람이 있다. 자녀는 스스로 계좌를 만들고,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관념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주식은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가족에게 권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금융 상품권을 연금 계좌에 등록한 뒤 연금 상품을 매수하면 된다. 연금 계좌는 당장 출금할 수 없고, 노후 자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연금 계좌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외 주식 투자를 권하고 싶다면 신한금융투자의 스타콘을 선물하면 된다. 스타콘은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상품권으로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를 통해 보낼 수 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것은 KB증권의 금융 상품권이다. KB증권의 금융 상품권이 특히 인기 있는 것은 할인 판매를 하고 있



기 때문이다. 1만 원권과 2만 원권을 판매 중인데 10%씩 할인해 준다. 2만 원권을 꾸준히 구매한 뒤 평소 사고 싶었던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와 동시에 10%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보험 상품권 선물

'왜 자꾸 주식 상품권만 추천하느냐'고 한다면, 금융 핀테크 앱인 페이코에서 살 수 있는 보험 상품권을 추천한다. 현재는 NH농협손해보험의 상품권만 팔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인기를 끈다면 경쟁사에서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의 중요성이야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금융 상품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선불리 가입해선 안 된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다면, 재테크 사이트인 '뽀뿌'의 보험 포럼을 추천한다. 개인 정보를 지운 뒤 보험 증권을 찍어 올리면, 어느 쪽의 보장이 부족한지 수많은 전문가가 코멘트를 달아 준다. 자녀가 부모의 보험을 들어주고 싶다면, 미리 보험 내용을 올린 뒤 가입 시 도와드리면 효자·효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예금통장보다는 금(金) 선물 추천

개인적으로 필자는 어린이 예금통장과 같은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필자는 그동안 자녀들이 받은 용돈을 증권사 CMA 통장에 넣어 두고 있었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져 아예 금융 상품 투자 쪽으로 바꿨다. 현재 금리 상황으로는 예금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통장보다는 한국거래소(KRX)에서 금 현물을 자녀 명의로 사 주는 것이 더 좋다. KRX 금은 현물을 받지 못하

는 대신 비과세로 적용된다. 금괴 현물을 갖고 싶다면 10%의 부가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KRX 금 거래를 추천한다.

부부의 날(5월 21일)이 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명품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실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다면 핀테크 기업 바이셀스탠다드의 '피스'를 활용해 보자. 피스에서는 롤렉스 시계나 명품 가방 등 현물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의 차익을 얻는다.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해 생겨난 투자법으로, 최근엔 미술품에도 투자하는 등 투자 영역이 다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탈중앙·분산이 핵심으로 거래 참여자 모두가 거래 내용을 볼 수 있는 투명성과 불변성을 갖추고 있다.

명품이나 명화를 사 주고 싶은데 지갑이 가벼운 상황이라면 한번쯤 명화·명품의 '조각'을 선물해 보면 어떨까. 물론 자칫 잘못했다간 괜한 화를 부르고 당장 백화점에 끌려 나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물해야 할 것이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영화 <미나리>

혐오와 경계로 점철된 오늘을 되짚게 만드는 작은 공동체의 이야기 <미나리>에 관하여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인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역사였을 것이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기생충>은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장편국제영화상까지 네 개의 트로피를 거머쥐며 파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도 한국인에게는 또 한 번 특별한 역사로 기억될 것 같다. 재미교포 2세인 정이삭 감독이 만든 영화 <미나리>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한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배우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한국어 대사가 대부분인 <미나리>가 아카데미 유력 후보로 꼽히며,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이어진 상황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풍경이다. <미나리>에 출연한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고, 배우 윤여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배우로서 두 번째로 64년 만에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되는 상황은 한국인에게도, 미국인에게도, 어쩌면 전 세계인에게도 분명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나리>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특별한 인상의 이방인처럼 다가오는 영화인 셈이다.

## 아이의 눈으로 관통하는 가족사

<미나리>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어린 소년 데이빗(엘런 김)의 얼굴을 비추며 시작한다. 그리고 데이빗의 시선이 닿는 자동차 앞좌석에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엄마 모니카(한예리)와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는 누나 앤(노엘 케이트 조)의 뒷모습, 세 사람이 탄 차를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 트럭의

뒷모습이 등장한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너른 평원을 지나 수풀이 우거진 길에 들어선 두 차는 곧 바위가 달린 트레일러 집 앞에 멈춰 선다. 이어 차에서 내린 모니카가 묻는다. “여기 대체 어디야?” 트럭에서 내린 남편 제이콥(스티븐 연)이 답한다. “집이지.” 모니카와 제이콥은 같은 희망을 바라보면서도 각자 다른 곳에 놓인 희망을 가리키기에 갈등하고 충돌한다. 그런 엄마와 아빠의 불안과 기대를 바라보며 자라는 앤과 데이빗을 돌보는 건 한국에서 온 외할머니(윤여정)다. 미국에서 좀처럼 찾을 수 없는 한국산 고춧가루와 멸치를 바리바리 싸 온 엄마가 몽클하기만 한 모니카와 달리 데이빗은 갑작스럽게 한 방에서 지내게 된 불청객 같은 외할머니가 반갑지 않다. 심지어 먹기 싫은 보약까지 지어 온 외할머니가 껌씹하기까지 하다. 요리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같지 않다’며 투정한다.

<미나리>는 어느 한국인 가족의 미국 이민기를 다룬 영화이자 데이빗의 성장담을 그린 작품이기도 하다. 공적인 시대상을 환기하는 동시에 사적인 기억에 공감할 수 있는 영화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탓에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던 아이가 뒤늦게 할머니를 위해 질주하는 순간, 한 아이의 성장을 증명하는 나이테를 마주하는 환희와 끝내 단단한 애정을 회복하게 될 한 가족의 희망이 벅차게 떠오른다. 절망의 순간을 지나가던 가족의 역사는 아이의 성장과 함께 희망으로 북돋운다.

## 아메리칸드림 2세대의 자전 영화

“단지 식물에 불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나리에는 시적인 영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미나리는 다른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열악한 토양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풍성하게 자란다. 그 결과 토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을 정화한다. 그런 미나리의 효과로부터 시적 울림이 느껴졌다.” 정이삭 감독이 ‘미나리’라는 제목을 붙인 건 우연이 아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미나리>는 어쩌다 발견한 미나리를 통해 이야기를 구상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드림을 아주 개인적인 수준으로 다루고자 노력했다. 아버지는 할리우드 영화를 봤기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말했다. 그를 위한 아메리칸드림은 그가 본 영화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려는 이 덧없는 꿈을 좇고 있는 것 같았다.” 비록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둔 영화’라는 자막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정이삭 감독 스스로의 말처럼 <미나리>는 감독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겪은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둔 작품이다. 윌라 캐더의 소설

<나의 안토니아>에서 이야기 구조에 대한 영감을 얻긴 했지만 그 안의 이야기는 온전히 자신이 지나온 삶으로부터 길어 올린 것이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부모님의 기록하지 않은 인생을 함께 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은 오래전에 지나온 기억을 더듬어 조우하는 경험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과정이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을 완성하기까지 직접적인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부모님과 누나를 비롯한 가족 누구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혀 발설하지 않았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자 했다. 그래서 완성한 영화를 보여 주는 과정에서 큰 긴장감을 느꼈지만 <미나리>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부모님과 누나의 모습 덕분에 이 영화가 그 시절을 지나는 모두에게 위안을 전하고 있음을 알고 안도하게 됐다.

## 가장 개인적이지만 보편적인 이야기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는 풍경을 목도한 정이삭 감독의 경험은 영화를 통해 시적인 은유로 재생된다.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이 자라 한 편의 영화가 된 셈이니 그 자체가 시적인 비유가 실체화된 세계나 다름없다. 기댈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땅으로 건너온 부모의 역사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서사일 것이다. 당시 희망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뿌리내린 아메리칸드림의 시대를 지나온 이들에게 전하는 보편적인 공감대나 다름없다.

역설적인 사실은 <미나리>의 가족은 정작 그들의 뿌리였던 한국인 관객에게는 다소 낯선 풍경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그들의 역사는 오히려 미국인보다도 한국인에게 더 멀게 느껴지는 이방인의 역사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 낯선 역사에 깊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건 한국인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와 한국어 대사의 익숙함을 통해 전해지는 친밀함 덕분일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나리>는 모두의 골레이자 울타리였던 가족에 관한 영화다.

가족은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이다. 어쩌면 다를 게 없을 것 같은 1음절의 절박함에 멀어지다가도 끝내 서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영화 속의 운명 공동체가 함께 일상의 희로애락을 감내하는 매 순간을 목격할 관객 모두가 저마다의 시간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미나리>라는 제목의 발음만큼이나 정겹고 애뜻한 예감을 통해 안도했을 것이다. 혐오와 경계로 점철된 작금의 세계를 지나는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

미나리 원더풀!

Health Infographics

# 오복 가운데 으뜸, 구강 건강 이야기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늘 쓰다 보니 새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나의 입 냄새다. 잘못된 식습관과 구강관리로 유익균이 죽고 유해균이 증식할 때 구강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뿐 아니라 몸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구강 질환, 어떻게 예방할까?

## 구내염

- 정의** 입 속 점막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 원인** 입안이 붓고 피가 나며 음식 섭취 시 통증 동반
- 증상**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잘못된 양치 습관
- 치료** 구강 청결과 수분 유지,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 치주 질환(풍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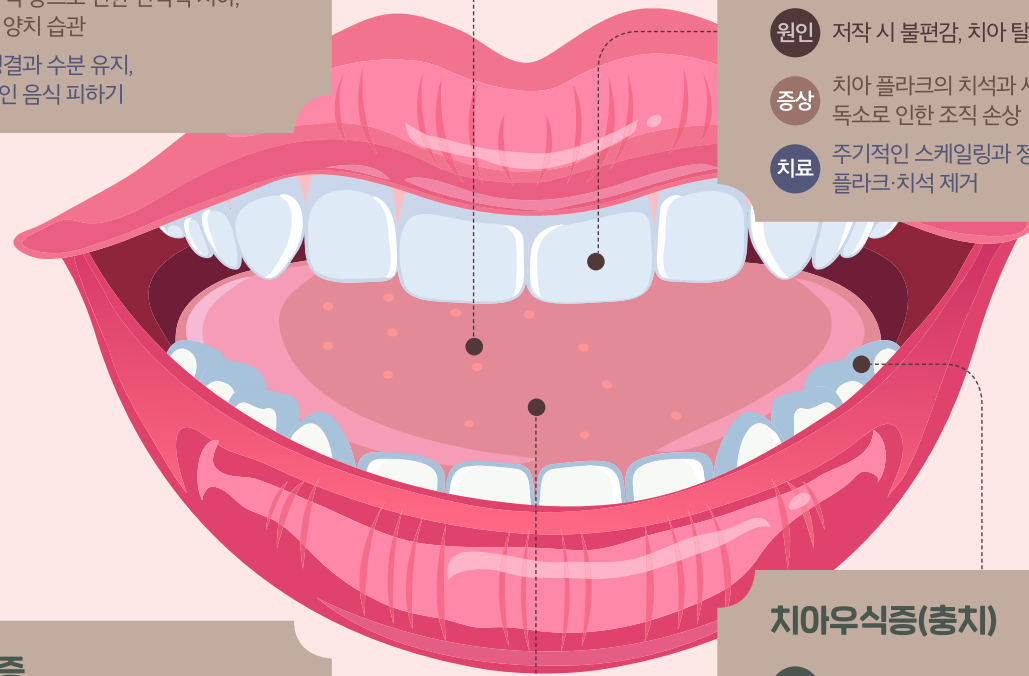
- 정의** 치은-치주 등 치아 주변 조직에서 나타나는 질환
- 원인** 저작 시 불편감, 치아 탈락
- 증상** 치아 플라크의 치석과 세균 막이 방출하는 독소로 인한 조직 손상
- 치료**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정확한 칫솔질로 플라크·치석 제거

## 구강건조증

- 정의**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마르는 증상
- 원인** 심한 건조감으로 음식을 삼키기 힘들고 의사소통 불편
- 증상** 쇼그렌 증후군, 빈혈, 당뇨, 영양소 결핍, 약물 복용 등
- 치료** 원인 질환의 치료, 금연·금주, 구강 청결 유지

## 치아우식증(충치)

- 정의** 치아 법랑질(에나멜질)의 손상
- 원인** 저작 시 불편감과 시린 증상, 심한 통증 등
- 증상**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에 의한 법랑질 손상
- 치료** 당류 섭취 자제, 섬유소가 많은 채소·과일 섭취, 실란트, 불소 도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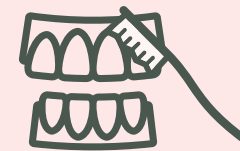
Healthy Guide

# 잘 먹고 잘 웃는 삶, 구강 관리로 시작하자

맛있는 음식을 꼭꼭 잘 씹어 먹는 즐거움, 보는 사람까지 웃게 만드는 환한 미소. 건강한 구강 관리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100세 시대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튼튼한 치아와 잇몸을 가꾸고 돌보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 올바른 양치질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하루 세 번 양치질



### Healthy Guide 01 치아, 혀, 잇몸까지

칫솔과 치아 각은 약 45도로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혀와 잇몸까지 골고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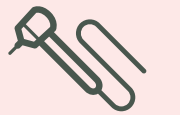


### Healthy Guide 02 치간 칫솔 사용하기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인접 면까지 깨끗이 관리해 주세요

## 정기적인 치과 검진

치과 공포증 저러 가라! 정기검진은 필수



### Healthy Guide 03 정기적인 스케일링

양치해도 쌓이는 치석 6개월마다 스케일링으로 깨끗이 제거해요



### Healthy Guide 04 치료는 최대한 빨리

아프면 참지 말기! 조기 발견과 치료로 증상 악화 막아야

## 구강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식습관

-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유제품 꼭꼭 챙겨 먹어요
-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은 후에는 치즈로 입가심해요
- 견과류 속 미네랄과 비타민이 치아 에나멜을 보호해요
- '아삭아삭' 과일과 채소가 치태 제거를 도와줘요
- 포도와 가지 속 안토시아닌은 잇몸 염증을 완화해요
- 물을 자주 마시며 입안 세균과 박테리아를 씻어 내요



## 교정본부장 언론 브리핑 재범 고위험군 대상 심리치료 및 선별적 가석방 완화 방안 발표



법무부 교정본부장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더욱 두텁게 마련한다.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 한층 면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모범 수형자 등에 대한 선별적 가석방 완화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확충

법무부 교정본부는 4월 2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교정본부장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교정본부의 일반 현황에 대해 설명한 뒤, 교정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인 '재범 고위험군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모범 수형자 등에 대한 선별적 가석방 완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교정본부는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을 확충함으로써 재범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시행된 수형자 심리치료는 OECD 주요국의 선진 교정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심리치료를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성폭력·아동 학대·마약·알코올 등 범죄의 원인별·유형별 특성에 따른 11개 치료 대상군을 선정해 각각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기본 100시간·집중 200시간·심화 300시간의 심리치료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유지과정'과 '특별과정'을 추가 편성했다. 유지과정은 출소가 임박한 재범 고위험 성폭력 사범에 대해 심리치료 효과를 출소 후까지 지속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20시간 동안 이뤄지며, 가학적·변태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은 15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정본부는 이와 함께 'N번방 사건'과 같은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리치료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알코올·마약 등 중독 수형자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캐나다 등 교정 선진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치료 공동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9월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알코올 중독사범을 대상으로 치료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운영해 수형자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이룰 계획이다.

### 선별적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교정본부는 선별적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능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형기가 80%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어 가석방 출소율이 28.7%에 그친다. 한편 2020년 기준 형기 종료 출소자의 재범역률은 32.1%인데 비해, 가석방 출소자는 6.8%에 그치고 있으며 가석방 기간 중 재범률도 0.16%로 매우 낮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생계형 범죄자·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형 집행률 심사 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반면 조직 폭력·마약·성폭력·아동 학대 등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다.

가석방 심사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석방 신청 절차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강력범 가석방 심사 시 전문 인력의 대면 면접·심리검사·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다각적으로 시행하는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 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 의지와 출소 후 생활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범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가석방 대상자의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REPI) 측정 항목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분과위원회 세분화, 3단계 심사 체계(교정기관-분과위원회-전원위원회) 확립, 외부위원 다양화 등을 통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출소 후 체계적인 관리, 개별 특성에 맞춘 가석방 조건 개발 및 부과, 재범 시 원칙적 가석방 불허 등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 대책도 철저히 강구된다.

브리핑 직후에는 가석방 심사 절차에 대한 부가 설명 및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시점, 디지털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폭넓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	
정	
적	결
인	정
	적
살	
일	증
로	거
	로
되	
찾	
다	

😊 최근 동고동락하던 선배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셨다. 선배님은 이제 조금 편히 쉬 수 있겠다고 너스레를 피우며 밝은 모습으로 직장을 떠나셨다.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고 이끌어 주신 선배님이셨는데... 사람이 들어간 자리는 티가 안 나지만 나간 자리는 티가 난다고 선배님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선배님이 너무 부러웠다. 나는 언제쯤 가능할까? 요즘 들어 부족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정년까지 15년은 더 버텨야 하는데... 견뎌 볼 생각을 하니, 1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태산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막막함이 밀려왔다. 나에게 정년은 필수 사항이고, 명예퇴직은 희망 사항이다. 외벌이로서 아이들 교육비와 집값, 그리고 노후 자금 등 점점 더 고민이 많아진다. 가능한 한 빠른 은퇴를 바라지만 그건 단순한 바람일 뿐이다. 그래서일까? 명예퇴직하신 선배님을 보면 무한한 존경심과 부러움이 가득하다.

😊 사람은 어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아마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말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격언처럼 순응하고 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특히 출근하자마자 개성 강한 수용자를 상대하는 감정 노동과 반복적인 야간 근무는 교도관에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다. 코로나19 탓에 원하는 것을 못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 반면 코로나 시대를 초월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우리 집에 있는 두 딸들이다. 초등학교 딸들에게 코로나는, 인형 놀이에 쓰이는 다양한 에피소드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딸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은 맘대로 하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펼쳐지는 인형 놀이, 슬래잡기, 숨바꼭질 등... 삼시 세끼 다른 반찬을 요구하는 이 녀석들을 보면서 육아야말로 엄청난 스트레스임을 새삼 느꼈다.

😊 과거에는 매일같이 싸우고 큰소리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 엄마인데 좋은 말로 타이르면 좋지 않을까? 예쁜 말로 설명해 주면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딸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육아가 극한의 스트레스임을 알게 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 큰소리는 기본으로 장착하게 되고, 잦은 회유와 협박 사이를 줄타기하고 있다. 좋은 말로 달래고 또 달래다 안 되면, 불같은 화로 다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새삼 대단해 보였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엄마가 위대하게 느껴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엄마'라는데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 요즘 딸들의 인형 놀이 소재는 탐정 놀이가 주를 이룬다. 옆에서 가만히 들어 보자면 흥미진진하다. 한창 긴장감이 고조돼 사건이 미궁에 빠지다가도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하고 인형 놀이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사를 한다.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 미궁에 빠지지 않는 명탐정! 언제나 진실은 하나!" 그리고 서로에게 "결정적 증거는 ○○○이다"라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토론을 한다.

듣고 있자니 재미있게 노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온종일 놀고 있는 걸 보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애들아, 너희는 좋겠다. 아빠는 요즘 너무 힘들다.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혈압 관리를 하려 했는데 실패하고, 자격증 공부는 어려워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날마다 살만 찌는 것도 싫다"라고 푸념을 했는데 딸들의 답변에 순간 못난이 아저씨가 되고 말았다. "아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봐.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도전했다는 증거고, '힘들다'는 것은 아빠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증거고, '그만둘까'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야? 그리고 '살찼다'는 것은 그동안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야. 어른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라고 하는 것이다.

😊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진실은 언제나 하나다. 마치 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 덕분에 그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실패한 수많은 원인 중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는 증거를 결정적인 이유로 본다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고, 덕분에 웃을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결정적 증거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많을수록 그리고 빨리 찾을수록, 내게 일어났던 불행도 불쾌한 일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결정적 증거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는다. 그 해답은 아이들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았다.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긍정적인 요소를 쉽게 찾아낸 것이다. 결정적 증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유독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 탓에 마음의 시력이 흐릿한 이 시대에 부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길 바란다. 나아가 코로나19도, 우리의 스트레스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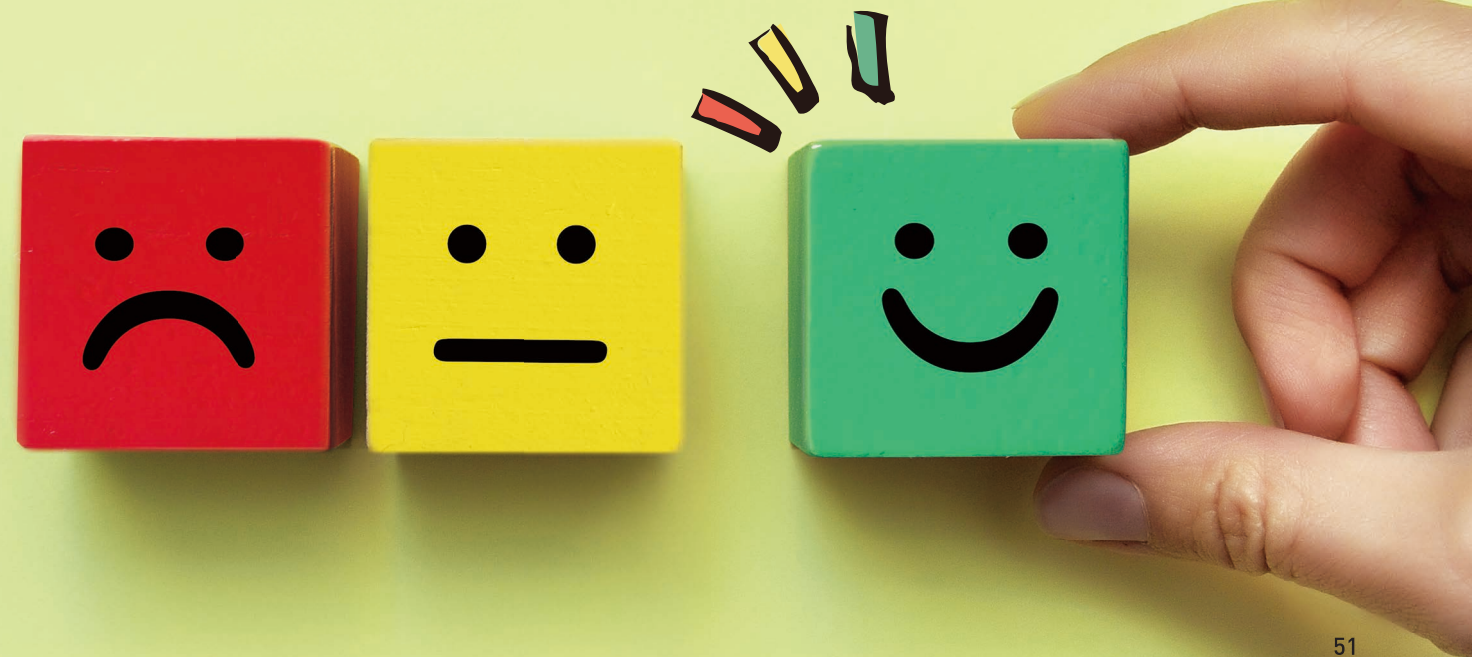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다	시	는		죄	를		짓	지		않	겠	다	는
			마	음	가	짐	으	로		속	죄	하	고
반	성	하	며		살	겠	습	니	다				

저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위반’과 ‘폭력’ 등의 중죄를 짓고 2018년 11월 19일 구속돼 징역 3년,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제가 지은 죄값을 달게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모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자 용기를 내어 글을 적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50살, 하늘의 명을 깨닫는 지천명(知天命)이 됐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저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온통 범죄로 얼룩진 인생이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죄인이지만 그전에는 저도 세 자녀와 아내, 부모님을 부양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지 않고 법을 경시하며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저의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죄를 저지르고 체포돼 조사받는 동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못했지만, 재판부에서 저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참작해 주셔서 공범들과 달리 징역 3년을 받게 됐습니다. 공범들은 각각 징역 7년, 5년, 4년 6월, 4년을 받았지만, 저는 지은 죄보다 형량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입소 후 분류 심사를 받을 때까지도 제가 받은 형량이 적다는 생각에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저로 인해 마음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모든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폭력 피해자분께는 정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재판 당시 제 아내와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피해 회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너무 화가 나신 바람에 “합의를 못 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제가 나이 많으신 분께 몹쓸 짓을 했으니 저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구속된 지 26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오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15일 동안 이곳 교도소에서 집중 인성교육을 받으면서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미움, 스트레스 등을 모두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육받은 내용을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며 출소 후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착한 가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직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참회가 피해자분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정공무원의 직장-가정 갈등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①

김미선\*\*·박성수\*\*\*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의 설계 및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통권 제83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제1저자.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 접수일(2019. 6. 2), 심사일(2019. 6. 20), 수정일(2019. 6. 25), 게재확정일(2019. 6. 26.)

## 국문 요약

교정직은 수용자를 관리·통제하면서 교정·교화시켜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 특성으로, 직무소진과 직장-가정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중의 하나이다. 가정보다는 직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직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정과의 갈등이 고려해야 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이 지각하는 직장-가정갈등과 조직헌신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폐쇄되고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의 직무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직장-가정 간의 갈등이 직무소진을 매개로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도출하기 위해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74명의 교정공무원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중 유효한 설문지 560부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정공무원들은 직장과의 갈등이 심화되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과 신분상,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의지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장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직무소진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이 직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정 간의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조직 차원에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직장-가정갈등, 직무소진, 조직헌신, 일·생활 균형, 교정공무원

## I. 서론

최근 직장을 구할 때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Work & Life Balance(워라벨)’로, 일·생활 균형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 간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가정 및 개인 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병재, 2009: 1)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

이다. 직장과의 가정이라는 두 생활 영역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역할 갈등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문제는 개인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그만큼 직장과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다양한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간호사(강희순 외, 2017), 여행업 서비스 종사원(안미숙, 2011), 군인(이민수, 2018), 경찰(권혜림, 2010; 백승신, 2010)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교정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직장-가정 간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검토된 바가 많지 않다.

교정업무는 폐쇄되고 격리된 교도소라는 공간 안에서 24시간 수용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사항 등을 처리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기타 직종 대비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다.(강재상 외, 2011: 310; 김미선·박성수, 2015: 147) 이처럼 교정조직의 업무 특성 및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이 일과 가정 두 영역 간의 역할 갈등을 초래한다면 이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 수준에서의 업무 성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문제로, 교정조직 차원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기업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조직은 직장과의 가정의 균형 유지가 쉽지 않은 조직적·업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구조적, 예산적인 문제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나 정책 시행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방관한다거나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권혜림, 2010: 4) 이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교정직의 직장과의 가정 간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정조직에서도 기업조직이나 다른 공공조직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정 갈등이 조직의 성과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논의

### 1. 직장-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 WFC)

직장-가정갈등이란 용어는 ‘직장이 한 개인에게 부여하는 역할로부터 기

대되는 요구사항과 가정에서의 역할로부터 나오는 요구사항이 포화 상태일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역할 간 갈등’이다.(이병재·정채석, 2013: 76) 즉 직장에 적극적으로 가정에서의 역할에 소홀해지고, 반대로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직장에서의 역할에 소홀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직장-가정갈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정신·정서적인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과의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Repetti, 1987; 안미숙, 2011: 22) 초기 연구에서는 직장과의 가정 갈등을 단일 차원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직장 영역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직장-가정 갈등)과 가정 영역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가정-직장 갈등)으로 구분된다. 직장-가정 갈등은 주로 일과 관련된 특성으로 과다한 업무량, 역할 모호성, 예기치 않는 출장 및 교대제 근무 등이 원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정-직장갈등은 가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 규모, 미취학 아동 양육·보육, 맞벌이 가정의 가족구조, 가족구성원과의 이혼 등이 주요 원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혀졌다.(Frone, Russel & Cooper, 1995; Frone, Yardley & Markel, 1997; Gutek, Searle & Klepa, 1991; 이병재, 2009: 8)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는 직장-가정갈등의 유형 중 직장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직장-가정갈등이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조직성과 측면에서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가정갈등에 초점을 두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직무소진(Job Burnout)

사전적 의미로서 소진이란 ‘신체적, 정신적 힘이 고갈되어 탈진한 상태’를 의미한다. 학문적 의미에서 직무소진이라는 용어는 Freudenberger(1975)에 의해 소개되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의욕을 잃고 피곤해하다가,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냉정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정서적, 신체적 소진이라 명명한 데서 유래’하였다.(정혜경, 2014: 5) 그리고 Freudenberger(1975)는 조직구성원은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으나 자신이 기대했던 성과나 보상을 받지 못하면, 결국 인간적으로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상태로 정의하였다.(박영희 외, 2019: 775) 즉 외부와의 접촉이 많은 종사자들이 장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겪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직무소진으로 설명하고 있다.(박성수, 2016: 42) 물론 직무소진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인 개념으로 명명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직무탈진감이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무소진은 조직의 인적자원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증명되어 왔으며, 교정조직의 특수한 직무형태로 직무소진을 경험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있다.(강제상 외, 2011; 박혜련 외, 2009). 특히 교정직은 수용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교정업무에 대한 책임이 만성적으로 누적되면서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이 결국 심리적으로 고갈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외, 2004: 24-25; 황선유, 2016: 2)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정서적 고갈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수용자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태도 및 행동이 결국 교정서비스의 질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점이다.(정동하, 2010: 5)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등을 저해하는 등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을 높이는 원인 중에서도 직장-가정갈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무소진으로 발생하는 감정이 조직에 대한 애착 또는 긍정적인 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조직헌신(Organizational Commitment)

헌신이라는 용어는 사회학 분야에서 개인과 조직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며, 조직헌신은 1960년대 조직행태론에서 사용한 이래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검토되어지고 있다.(김형선, 2016: 59)

조직헌신이란 직무만족도보다 조직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서로, 직장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애정 또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Schuler, 1980; 유현숙, 2013: 25) 즉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에 일체감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고도의 노력을 경주하려는 의지와 조직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이것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조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이며, 조직구성원이 조직헌신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조직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조직의 목적 또한 효과적으로 달성된다는 원리이다.(박수진, 2012: 2) 이것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며,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직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특징이 있다.(임동호·김대석, 2014: 198) 따라서 조직헌신은 단순히 직무만족의 의미를 넘어 조직 전체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반영하는 다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Metcalf & Dick, 2000; 이창한, 2013: 138)

그리고 조직헌신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그 개념 정의가 다양한 만큼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명수 외(2011)의 연구와 김명호(2016)에서 주장하는 조직헌신의 구성요인으로 충

성심과 가치수용, 헌신자발성을 선정하였다. 충성심은 조직에 대한 애착 감정 및 애정 등을 의미한다. 가치수용은 조직목표에 대한 긍정적 수용 및 이에 대한 강한 신념을 말하며, 교정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보람, 소속된 조직의 가치와 목표의 수용, 근무 만족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가치가 일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헌신자발성은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욕구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조직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이 조직에 헌신한다는 의미는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신분으로 초래된 결과가 아니다. 즉 조직헌신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직헌신이 교정공무원의 조직참여도와 직업성취도를 높이고 조직에 이익이 되는 긍정적 행동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Lincln & Kalleberg, 1990; 이창한, 2013: 139) 만일, 교정공무원이 조직헌신도가 낮다면 잦은 직무이탈 및 이직의도를 갖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교정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적절히 관리하고 구성원의 조직헌신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하다.(정대용·이원행·김춘광, 2013: 320) 이직률이 높은 교정조직의 경우에서도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헌신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 Ⅲ. 연구의 설계 및 방법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이 직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이 직무소진과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조직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과 가정의 적절한 역할 수행으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주요 변인의 측정도구

#### 1) 직장-가정갈등

직장-가정갈등이란 직장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역할 요구로 상호 절충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두 영역 간의 역할갈등이다. 해당 변수는 Gutek et al(1991), Higgins et al(1992) 등이 개발하고 박인규(2004)가 사용한 바 있는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이병재, 2009; 35)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업무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다', '업무로 인하여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많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배우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적이 있다', '회사에서는 효율적이고 필요한 행동이 가정에서는 역효과를 일으키곤 한다', '우리 조직에서 사용하

는 문제해결 행동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직장에서는 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행동들이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 적이 있다' 와 같은 6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가정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가정갈등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860이다.

#### 2)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교정공무원이 직장에서 업무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정신적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직무소진의 측정도구는 Schaufeli et al(1996)이 개발한 MBI-General Survey(MBI-GS)의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장시간 내가 맡은 일을 처리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는 것을 느낀다' 등의 5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소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소진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896이다.

#### 3) 조직헌신

조직헌신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노력하느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뢰, 개인이 조직을 위해 스스로 노력 하려는 의지,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열망 등을 담고 있다. 조직헌신의 측정은 Porter et al(1974)이 개발한 척도를 김명호(2016) 등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가치수용, 헌신자발성, 충성심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인 4점 척도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조직헌신도 높음을 의미한다. 조직헌신도의 하위변수인 가치수용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882, 헌신자발성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704, 충성심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639이다.

### 2. 분석자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이 연구의 모집단을 살펴본 결과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은 총 1만 4,798명이었다.(교정본부, 2017년 기준) 연구자는 모집단을 기준으로 임의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자료 시점에서 법무부 산하의 전국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교정청과 38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6개소이다. 이 중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의 비율을 고려하여 설문을 배포·회수하였으며, 근무처별에 따라 교도소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교도관의 비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체 설문지의 10% 이상 여성교도관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우편 설문 방법을 활용하였다. 총 574명의 교정공무원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유효한 설문지 560부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표 1> 표본 추출 현황

구분	지역별				근무처별		성별		계
	서울	대구	대전	광주	교도소	구치소	남	여	
인원	283	102	86	89	380	180	473	87	560
비율	50.5	18.2	15.4	15.9	67.9	32.1	84.5	15.5	100.0

<표 2>은 560명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급, 총 재직기간을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대상자 560명 중에서 남성교도관은 473명(84.8%), 여성교도관은 85명(15.2%)으로 상대적으로 남성교도관의 비율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전체 교정공무원 집단에서 여성교도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남녀 구성비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연령별 분포에서는 30대가 240명(43%)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40대가 180명(32.3%), 50대 87명(15.5%), 20대 51명(9.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수와 진종순(2016: 23)의 연구를 참고하면 전체 교정공무원 집단의 연령대는 30대(37.9%)와 40대(39.9%), 직급은 7급(36.9%)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교정공무원으로 설정한 응답자의 특성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남	여	교도소	구치소		1년-9년	10년 이상	6급 이상	7급 이하
성별	남	473	(84.8)		근무기간	1년-9년	300	(54.2)	
	여	85	(15.2)			10년 이상	254	(45.8)	
연령	20대	51	(9.1)	직급	9급	165	(29.7)		
	30대	240	(43.0)		8급	145	(26.1)		
	40대	180	(32.3)		7급	193	(34.7)		
	50대 이상	87	(15.6)		6급 이상	53	(9.5)		

## 법무부 장관, 청주여자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14일 청주여자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박범계 장관의 세 번째 교정기관 방문으로서, 양육유아 수용거실, 가족접견실 및 화훼장식 훈련장, 헤어디자인 훈련장, 한식조리 훈련장 등을 돌아보며 수형자들의 직업훈련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격려했다. 또한 간부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2021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지난 4월 5일부터 9일 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교정기관 수형자 52명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개 기관에서 76명의 수형자가 용접, 가구, 웹디자인 등 15개 직종에 참가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훈련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금상 16명, 은상 16명, 동상 13명, 장려상 7명 등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10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됐다.

## 2020년도 법무부 SNS 홍보 우수기관 선정



지난 4월 6일 교정본부가 2020년도 법무부 SNS 홍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인기도, 서비스 영향력, 콘텐츠 충실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며, 법무부 장관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교정본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책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 법무부 장관 주재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지난 4월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 회의실에서 법무부 장관 주재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속된 사건·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정행정 쇄신 방안 마련 등 교정기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58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관장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결의문 선서와 주제 발표 후 당면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 법무부 차관, 천안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12일 천안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 및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용구 차관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유무를 확인할 관찰실과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 전국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등 백신 접종 실시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 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 구조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지난 3월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돼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 접종은 교정기관 자체 의료진에 의해 실시됐으며, 교정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대체복무 요원 등 총 15,971명 중 94%인 14,971명과 75세 이상 수용자 2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접종은 11주 후인 7월 초, 백신 배송 일일부터 1차 접종과 같은 방법으로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노홍비**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오픈 준비**  
 서울지방교정청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중 하나인 신규 접견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신규 접견시스템은 태블릿 단말기 도입 등을 통해 접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구치소 / 교사 김상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서울구치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교정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유병철 소장은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교정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과 코로나19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KF94 마스크 위탁 생산 실시**  
 안양교도소는 4월 12일부터 위탁 작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 위탁 생산을 시작했다. 안양교도소는 국내 교정시설 중 최초로 민간 기업과 위탁 작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클린룸 등 KF94 마스크 생산 설비를 완비해 작업장을 조성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소망갤러리 개관식 개최**  
 수원구치소는 4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소망갤러리에서 한국창작회 초대 전 <긴 겨울 지나 봄은 오고>를 진행한다. 한국창작회 소속 작가 21명이 참여한 이번 초대전에서는

봄을 주제로 한 21점의 아름다운 작품이 방문하는 민원인을 맞이한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박창희**  
**승진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4월 5일 승진 직원 16명과 신규 직원 15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꽃다발을 전달했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인천구치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김동현 소장은 “백신 접종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접종이 시작돼 다행”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정시설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부활절 기념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4월 1~2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기독교 분과위원회로부터 사랑의 온정이 담긴 바람떡 및 절편 2,250개와 삶은 달걀 4,5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품은 부활절을 기념해 가족과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직업훈

련 수용자 5명은 4개 부문에 출전해 금상(2명), 은상(1명), 장려상(1명)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최재성**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4월 8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영희 본부장은 대체복무요원 운영 상황과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북부 법조타운' 예정 부지를 확인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승진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여주교도소는 4월 6일 승진 직원 9명과 신규 직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남준락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멋진 교도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을 축하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부활절 기념 기증**  
 서울남부교도소는 4월 2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절편 1,2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받은 절편은 수용자 취사장에 인계해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했으며, 코로나19로 지치고 소외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춘천교도소는 4월 15일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김일환 소장은 “이번 백신 접종을 계기로 집단면역을 형성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정

시설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4월 21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원주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원주교도소의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수용자 의료처우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원**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강릉교도소는 4월 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강릉혈액원에서 방문해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식목일 행사 개최**  
 영월교도소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청사 및 외부 정문 주변에서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산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위 양인호**  
**식목일 행사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4월 20일 청사 주변과 진입로 등에서 묘목과 잔디를 식재하는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조정 등 교도소 내 환경을 정비하고 자연 친화적인 교정시설을 조성하는 기회가 됐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승진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4월 5일 승진 및 신규 직원 5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박진성 소장은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도와 즐거운 직장 생활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소망교도소 / 8직급 정은혜**  
**신형 근무복 착용 실시**  
 소망교도소는 4월 5일부터 새롭게 디자인한 신형 근무복 착용을 실시했다. 이번 신형 근무복은 소망교도소 개소 10주년을 맞아 襪주년 행사 추진단 복제로고팀에서 CI 개편과 함께 제작했다. 전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신형 근무복은 기능성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개선했다.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장성일**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 청렴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4월 7일 대회의실에서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오홍균 청장은 “공공 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생활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대구교도소는 4월 5일 신규 직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을 환영하고 대구교도소 직원이라는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정유철 소장은 “초심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도관의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교정협의회 수용자용 커피 머신 기증**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13일 수용자용 커피

머신 2대를 기증했다. 기증받은 커피 머신은 수용자 집단인성교육실과 심리치료실에 설치했다. 이번 기증품은 코로나19로 가족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등 단절된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홍성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안전하게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 외부 기관 협력, 응급 의료팀 구성 등 긴급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머핀 기증**  
 창원교도소는 4월 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마산의료원과 국립마산병원 의료진을 위해 머핀 600개를 창원시 합포구청에 기탁했다. 오세홍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이 만든 머핀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대체복무요원 전입 신고식 개최**  
 부산교도소는 4월 5일 대체복무요원 46명의 전입 신고식을 개최했다. 김도형 소장은 “부산교도소의 새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36개월의 대체복무 기간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 나가길 기원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4월 5일 신규 직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태수 소장은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의 본분을 다하길 바라며, 또한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짐으로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진주교도소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종합 12위의 성적을 거뒀다. 직업훈련 수용자 5명은 목공예 부문에 출전해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상(1명)을 수상했다. 도재덕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용자의 자력 취득 및 전문 기술 습득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외부인 무단 침입 대비 훈련 실시**

대구구치소는 4월 15일 교정시설 무단 침입을 방지하고자 외부인 무단 침입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흥기를 소지한 외부인이 외부 정문 근무자를 폭행하고 침투를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합훈련에서 도상훈련으로 대체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직업

훈련 수용자 4명은 용접과 타일 부문에 출전해 금상(1명), 은상(2명), 동상(1명)을 수상했다. 주정민 소장은 “대회 준비부터 수상까지 최선을 다한 직업훈련 교사와 수용자들의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안동교도소는 4월 2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로부터 지명을 받은 금융명 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지명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현

**코로나19 입문 협조 감사패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4월 16일 수용자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준 기관 및 단체를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진규 소장은 진보청년연합회, 청송군청, 청송군농업인회관, 청송의료원, 임업인연수원, 청송사과협회 등 6곳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천소년교도소는 4월 19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차재성 소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원 격려품 전달**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4월 6일부터 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 세트를 전달했다. 김영광 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식목일 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4월 2일 식목일을 앞두고 ‘청림나무’와 ‘청림타임캡슐’을 심는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나무 등을 심고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전 직원이 작성한 청림 다짐 포어를 ‘청림타임캡슐’에 넣어 ‘청림나무’로 지정된 나무 앞에 묻었으며 1년 후 개봉할 예정이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부활절 기념 기증**

경주교도소는 4월 2일 천주교 대구교정사목후원회로부터 부활절을 맞이해 구운 계란, 백설기, 음료수 등을 기증받았다. 박원호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든 시기에 수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기증품을 전달해 주신 천주교 대구교정사목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식목일 행사 개최**

통영구치소는 4월 1일 식목일을 기념해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철쭉나무, 영산홍나무, 광광나무, 옥향나무 등을 청사 주변에 심었다. 김철민 소장은 “지속적으로 나무와 꽃 등을 가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교정기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도 한승훈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밀양구치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생활방역대책팀, 수용처우팀, 대외협력팀, 현장지원팀 등 각 팀별로 맡은 임무를 숙지해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취효진 수용자 마스크 기증**

상주교도소는 4월 15일 취효진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용자용 마스크 2만 장을 기증받았다. 취효진 문훈희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예방에 보탬이 되고자 자사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기부했으며,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성구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4월 5일 교감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동료 직원들이 참석해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덕담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진구 청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계급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교도관의 본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전달식 개최**

대전교도소에서는 4월 8일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 및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직 생활 30주년을 맞이한 백종석 교감이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누적 기부금액 500만 원 이상 회원에게 수여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금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충청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청주교도소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충청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대회에 출전한 수용자 5명은 전원이 입상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타일 부문에서 금·은·동·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웹디자인 및 개발 부문에서도 은상을 수상하는 등 역량을 뽐냈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법무부 차관 정책현장 방문**

4월 1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 및 백신 접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이용구 차관은 백신 보관 냉장고와 접종 장소, 관찰실 등을 집중 점검하고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발생 시 업무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법무부 장관 정책현장 방문**

4월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기관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며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양육유아 수용시설 및 가족접견실, 직업훈련장 등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수용자들을 격려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4월 5일 교감 승진 직원 8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승진 직원 8명은 임용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교감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다. 이에 승진 직원들은 한층 무거워진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도 공주교도소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식목일 행사 개최**

충주구치소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모종 식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의 가치를 되새기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충주구치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교정기관의 밝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홍성교도소 / 교사 조경환

**식목일 행사 개최**

홍성교도소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청사 주변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진석 소장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청사 진입로 및 주변 나무에 거름을 주고 코스모스와 팬지를 심었다. 김진석 소장은 “이번 행사가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4월 5일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해당 직원들만 참여했다. 승진 직원들은 높아진 계급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정행정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김승인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4월 5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교감 승진 직원 2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꽃다발 및 계급장 수여 등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철흠 소장은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이어 가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대전교도소 노산지소 / 교도 손준성**  
**코로나19 업무 협조 감사패 전달**  
 대전교도소 노산지소는 4월 15일 노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대전교도소 노산지소는 노산시보건소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소통 게시판 설치**  
 광주지방교정청은 4월 26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소통 게시판을 제작 및 설치했다. 소통 게시판은 직원 간 격려와 칭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기적인 소통으로 직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교도소 / 교위 박재석**  
**식목일 행사 개최**  
 광주교도소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감나무를 심으며 직원들과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감나무마다 이름을 지어 주며 이날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기념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직원은 “을지로는는 사과나무를 심고, 광주교도소에는 감나무를 심어 보자”라며 노랫말을 개사하는 등 재치 있는 입담으로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4월 8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최병록 소장은 “신규 교정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순천교도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직원 및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박병일 소장은 “백신 접종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면 좋겠다”고 백신 접종 소감을 밝혔다.

**목포교도소 / 교사 광한국**  
**전라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목포교도소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전라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대회에 출전한 수용자들은 가구 부문에 참여해 금·은·동상을 수상했다. 정봉수 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좋은 소식이 들려 반갑고, 수상의 결과보다 참가자가 흘린 노력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대우**  
**대체복무요원 간담회 실시**  
 군산교도소는 4월 23일 대체복무요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체복무 환경 및 업무 관련 애로 사항을 토의하고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마무리됐다. 군산교도소는 앞으로도 대체복무요원의 원활한 복무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소통 건의함 설치**  
 제주교도소는 4월 7일 직원 간 소통 및 유대감 형

성을 위해 소통 건의함을 설치했다. 서호성 소장은 “의명성을 보장하는 소통 건의함을 활용해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이 개선되고 열린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식목일 행사 개최**  
 장흥교도소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수목의 소중함과 가치 보존의 의미를 담아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동백나무를 식재하고 비료를 주는 등 다양한 식목 활동을 진행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해남교도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직원 및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조관성 소장은 “이번 백신 접종으로 교정시설 내 집단면역을 형성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비쳤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제2기 징벌위원회 발족**  
 제2기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4명을 위촉했다. 구성은 퇴직 교도관 2명, 현직 변호사 및 법무사 각 1명으로 앞으로 2년간 각종 수용자 징벌 사건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학봉 소장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했으며, 공정한 법집행으로 원칙과 인권이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위 김재경

## 맞춤형 수용생활 지도를 통한 교정사고 예방

김재경 교위는 보안과 미결 수용동 업무를 담당하며 수용자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엄정한 근무자세로 수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자살 우려자 등 관심대상수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맞춤형 수용생활 지도로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교도소 교사 김규대

## 신속하고 즉각적인 상황 대처를 통한 화재 사고 예방

김규대 교사는 지난 3월 3일 오전 7시 25분경 사회복귀과 1층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주변을 수색해 화재 사고를 예방했다. 제2교육실 앞 복도 천장 전선에 스파크가 발생하며 타들어 가는 것을 발견하고, 도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이태영 교감에게 즉시 상황을 전파했다. 김규대 교사는 이태영 교감이 가져온 소화기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했다.



대전교도소 교감 윤광식

## 수용 질서 확립 및 교정행정 발전

윤광식 교감은 출정 시 공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기초 질서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교정시설 밖에서도 수용 질서를 확립했다. 특히, 소환 기록을 사전에 대조·확인해 특이 수용자 동정 파악과 정보 공유로 교정사고를 방지했다. 또한 법원 및 검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판 절차 및 검사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목포교도소 교사 박준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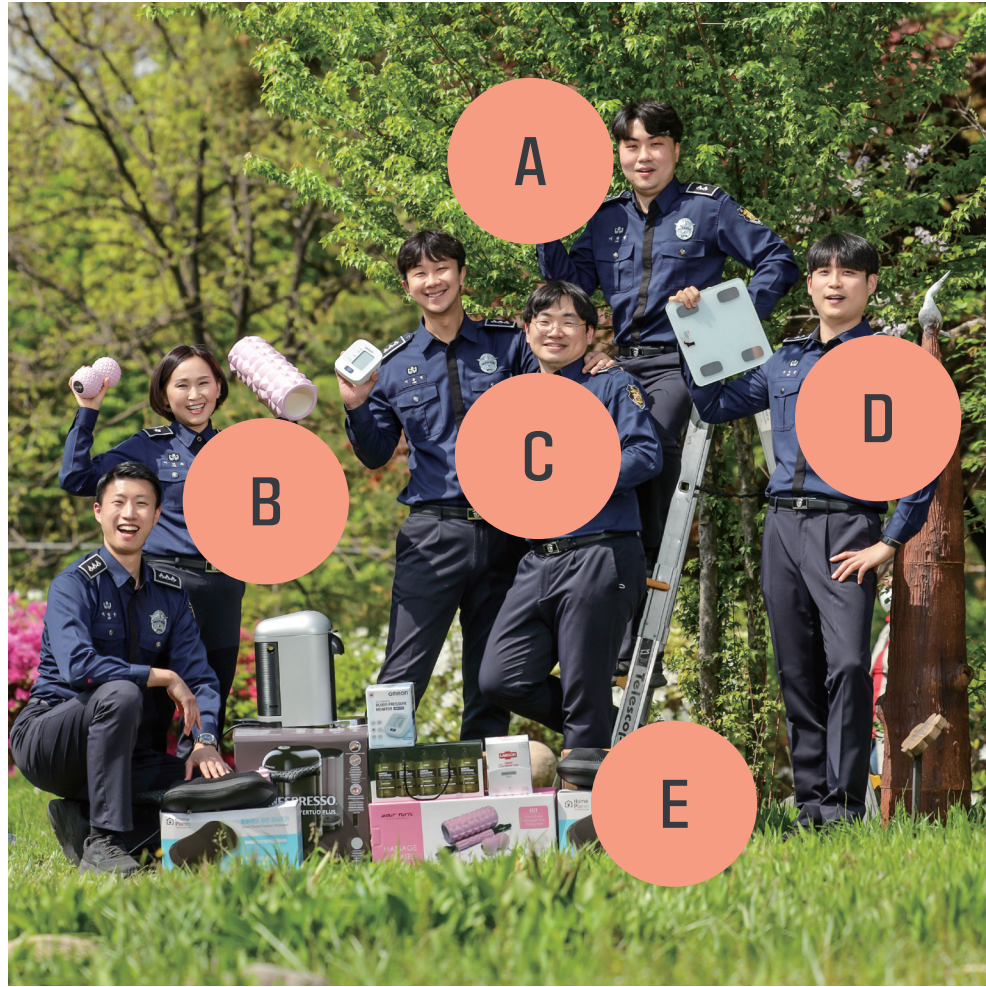
## 수용자 건강관리 유지 및 교정사고 예방

의료과 의료 동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박준태 교사는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파악해 신속하게 의료 처우를 받도록 하는 등 수용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압박봉대를 사용하는 수용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찰을 제작해 근무자가 해당 수용자를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맞는 사진  
맞추기**

아래의 사진은 '교정인 원픽' 코너의 메인 사진입니다. 사진 속 동그라미와 맞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1, B-2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는 부분 5가지를 맞춰 보세요.**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 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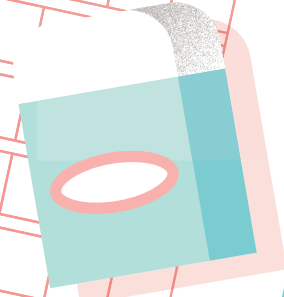
#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서 교정공무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자신이 꿈꿔 온 부캐를 체험하거나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교정공무원의 삶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부캐를 만들어 또 다른 삶을 경험하세요!		No.
대상	전국 교정공무원 여러분	
참여 코너	부캐를 부탁해	
신청 방법	평소 체험하거나 배워 보고 싶었던 것(승마, 가족공예 등)을 이메일에 적어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와 함께 보내 주세요!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 온라인에서 만나는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QR 코드를 인식해 교정본부의 생생한 이야기와 새로운 소식을 만나 보세요!

## 교정본부 온라인 소통 채널



 **교정본부 페이스북**  
facebook.com/mojcor

 **교정본부 유튜브**  
youtube.com/교도소24시



 **교정본부 민원톡**  
pf.kakao.com/\_wUAXed/chat

 **교정본부 웹진**  
cowebzine.com

